

1930年代 美國과 英國의 産業構造와 景氣回復⁽¹⁾

姜 光 夏 · 梁 東 然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에 대한 연구는 원인과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 주력하여 회복과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어왔다. 이 글은 미국과 영국에서의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이 과정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근본위계 이탈과 함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 및 내구소비재 수요가 증대된 것이 두나라에 공통된 경기회복의 경로였으나 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할 때 거시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정에서의 산업별 투자배분이 바람직하게 수행되지 못한 배경으로서는 사전적 개별투자수익률이 연쇄효과를 고려한 사후적 수익률과 일치하지 않는 시장실패요인, 수익률에 따라 생산요소가 빠른 속도로 옮겨가지 못한 자원이동성의 문제, 이와 같은 요인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업 및 경기침체의 편중 등을 들 수 있다. 양국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산업구조의 특징에 힘입어 투자배분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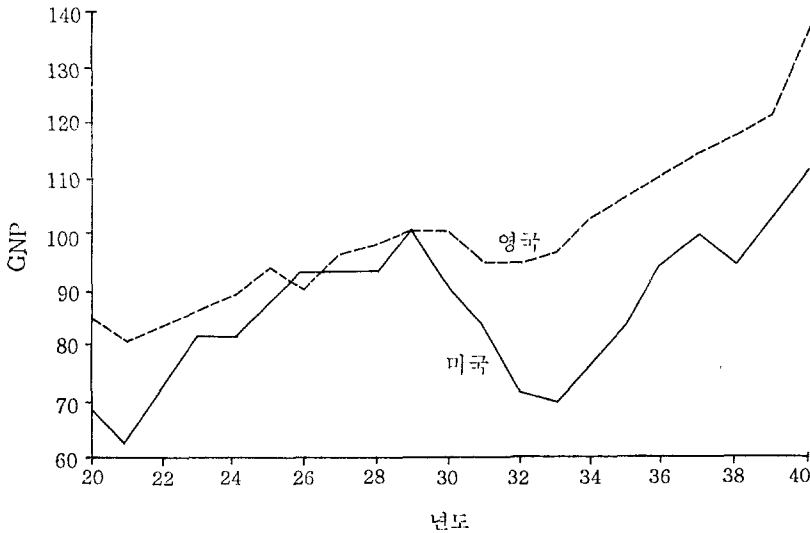
1. 問題의 提起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이 경제학에 갖는 의미는 빅뱅(Big Bang)이 물리학에 갖는 의미와 유사하다. 대공황은 근대적 거시경제학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학자들을 신경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²⁾ 대공황연구가 갖는 現時性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 불황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부각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경기변동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난 10여년 간에 이르는 경기침체의 경험은 아직까지 겪어본 중 가장 심했던 1930년대의 대불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이다. 1930년대를 살펴봄으로써 1980년대를 보다 잘 이해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고안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경제학자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경주되고 있다.⁽³⁾

(1)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의 김두얼 군에게 감사를 표한다.

(2) 이 비유는 Margo(1993)에서 차용하였다.

(3) 이러한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의 예로는 미국의 경우 Saint-Etienne(1984), 영국의 경우 Gregg and Worwick(1988) 등이 있다. 또한 최근의 불황대책 모색을 위해 뉴딜정책 특히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Public Works Administration, Civilian Conservation



註: 1) 미국은 1958년, 영국은 1938년 불변가액 GNP를 이용하였다.
 資料: 미국: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5, p.224).
 영국: Mitchell (1978, p.416).

〈그림 1〉美國과 英國의 GNP, 1920~1940 (1929年=100)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 주력하여 왔다. 이는 아마도 1930년대 초반의 격변이 너무 극심하여 회복기로의 전환점까지의 하강곡면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2차대전의 발발까지에 이르는 완전고용으로의 회복을 가능케 한 요인들을 식별, 검토한 문헌이 최근에도 적지는 않으나 그 대부분이 회복은 속도가 매우 느리고 불완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1932~33년부터 시작된 회복과정을 설명하는 기존문헌을 검토한 후 이 과정을 산업 부문별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또한 대공황연구가 대부분 일국내의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세계적 시각에 의한 접근은 비교적 일천한 사정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의 공황탈출과정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양차대전간 미국경제와 영국경제는 對照的인 經路를 보인다. 즉 20년대의 미국은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호황을 누렸고 따라서 30년대의 공황은 미국에 있어 더욱 혹독하였다. 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은 30년대의 경기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실업률만 하더라도 1921~29기간 미국의 경우 제조업이 7.7%, 경제전체로 4.9%에서 1930~38기간에 각각 26.1%, 18.2%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2.0%,

Corps 등의 경협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1992. 6. 1), Los Angeles Times(1992. 11. 15) 등 참조.

6.8%에서 15.4%, 9.8%로 증가하는 정도였다[Eichengreen and Hatton (eds.) (1988, p. 9)]. 이것은 영국이 1920년대에 이미 실업률이 높았던 것에 기인하며 따라서 대공황을 더 오랜 기간에 분산시켰던 때문이다. 이와 같이 20년대의 상황이 교차한 것은 흔히 金本位制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파운드화가 과대평가, 달러화가 과소평가된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고평가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국은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허덕여야 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주기적으로 경기변동이 있게 마련이고 미국 주식시장붕괴를 시발로 하여 1929~30년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반전한 사실도 주기적인 경기변동을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기나 증권시장과열이 심화되면 결국 금융공황으로, 나아가서는 실물부문의 와해로 치닫게 된다는 가설 등으로도 경기국면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⁴⁾ 그러나 일단 시작한 하강국면이 왜 그렇게 極心한 恐慌을 초래했고 경기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과제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세계 대공황을 촉발시킨 미국의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을 밝히려는 작업은 통화설과 유효수요설간에 벌어진 소위 테민논쟁(Temin debate)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계속되고 있다. 대공황이 有效需要의 부족에 따른 생산설비과잉 때문에 일어났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지적하고 있는 요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 수요확대가 바람직하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상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점차 불공평해지고 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자원이 이전되므로 소비지출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토지투기시장 및 주식시장의 붕괴로 실질 富의 감소가 초래되어 소비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네번째로 20년대에 불을 이루었던 주택건설과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경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효수요증가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유효수요부족설에 강력한 반기를 들고나온 것이 1963년에 출간된 프리드만과 스워츠의 통화설이다. 농업부문의 피폐나 자본시장의 붕괴 어느 것에 의해서이든 간에 1930년에 은행공황이 야기되었고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은 민간이 현금을 선호하게끔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은행자체의 자금관리방식을 위협회피적, 안전우선주의적으로 바꾸게 하여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을 크게 저해하였다.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면 通貨乘數가 급락하였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위원회가 본원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일

(4) 예를 들어 Kindleberger(1978, ch. 2), Minsky(1982).

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위 데민논쟁이라고 불리는 통화설에 대한 반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통화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맞다면 통화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명목통화량은 감소한 것이 분명하나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실질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공황의 원인을 따지는 일은 이 글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이지만 주식시장붕괴, 금융공황 그리고 그에 잇따른 실물경제의 엄청난 악화를 미국내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언급해 둘 만하다.⁽⁵⁾ 이들은 모두 國際通貨制度와 대공황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화론적인 한 견해는 1927~29년 중 미국의 방만한 금융정책이 여타 금본위국가에 비해 미국물가를 높게 만들었고 이것이 1928~29년사이 경상수지적자와 금의 유출을 야기하여 통화량이 감소하였다고 한다[Meltzer (1976)]. 보다 더 많이 인용되는 주장에 따르면 전전의 고전적 금본위제의 안정성은 그 시스템의 주도자인 영국(그 대리자인 英蘭銀行)의 효율적인 관리에 유래한다. 경기 침체에 도 영국 자본시장의 국외대부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영란은행의 이러한 국제적인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은 금본위제를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전간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은 국제적인 금융질서를 주도할만한 능력이 없게 되었고 미국은 의도가 부족하였다. 즉 전간기 금본위제도의 불안정성의 원인은 국제적인 체계 모니의 부재이다[Kindleberger(1986, ch. 14)].

데민논쟁의 시발자인 데민도 세계적인 시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는 대공황의 역사적 연원이 1차대전이며, 또한 대전이후 각국이 금본위제의 틀 안에서 緊縮政策을 영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심하게는 양차대전간의 기간을 “두번째 30년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영국이 전쟁전 평가로 금본위 복귀를 위하여 긴축정책을 실시한 것은 물론, 프랑스는 중앙은행법상 안전제일주의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며[Eichengreen (1986)], 미국과 독일은 주식투기억제를 위하여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영국이 1931년에 금본위를 포기하고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한 일은 적절한 대응이었으나 미국이 1933년, 프랑스가 1936년, 독일이 2차대전시까지 금본위를 고수한 것이 경제적 정책실패라고 강조하고 있다.⁽⁶⁾ 1931년 5월에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이 도산을 하고 다음 달로 독일의 금융공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보수 일변도로 치달아서 달

(5) 필자 중의 한명은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을 데민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양동휴(1992). 세계적인 시각에 대하여는 특히 102~103년 참조.

(6) 특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말기 브뤼닝 정권의 긴축정책과 그 대안에 대한 논의는 브르하르트(Borchardt) 논쟁이라고 불리며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대(1992) 참조.

러 위기와 함께 금융공황이 일어났으며 그럼에도 긴축정책을 지속하여 세계대공황을 극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Temin(1989, chs. 1-2)].

절충론을 선호하는 학자는 지난 10여년간의 연구결과 대공황의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들 연구는 1930년대의 공황을 1차대전과 1920년대에 걸친 경제의 構造的 變化와 연결짓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 있어서의 내구재 생산 팽창과 노동시장의 경직화, 국제통화제도의 취약화, 국제결제 방식이 점차 미국의 대부에 의존하게 된 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Eichengreen(1992a, 1992b, introduction)].

〈그림 1〉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은 1933년, 영국은 1932년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 회복국면으로 돌아서게 한, 그리고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킨 요인을 찾아내는 일은 물론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논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논의들의 公約數를 구한다면, 각국이 금분위제의 틀 안에서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에 대한 유효수요의 부족이 야기된 것이 대공황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경기회복의 요인은 자연스럽게 금분위제 포기, 팽창정책의 실시, 그리고 유효수요의 팽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표준적인 경기변동이론에서 제시되는 자생적 회복요인, 예를 들어 임금, 물가의 하락 등에 국내에서의 팽창적 재정, 금융정책, 대외적으로 관세정책, 외환정책의 효과가 부가되어 유효수요가 증가한 것이 회복국면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유효수요가 창출되고 고용이 증대한 지역과 산업부문에 따라 경제가 ‘健全한’ 好況으로 복귀하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대공황 당시 실업대책으로 실업자들을 모두 거리의 사과장수로 활용하자든가, 구덩이를 뚫다가 다시 베푸는 작업에 고용하자든가 하는 농담들이 회자하였으나 이들이 불황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하다.⁽⁷⁾ 즉 이 당시 경기침체 및 실업은 총수요의 증대자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거시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거시적 수요확대책과,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대책이 과연 二分法的으로 나뉘어 지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O'Brien(1987) 등 참고]. 또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경기회복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했는지 체제내의 자생적 회복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미미한 정도의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물음도 명확히 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⁸⁾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과제를

(7) 이삼십년전부터 널리 읽히던 한 거시경제학 교과시에서도 투자충구부족가설을 반박하기 위해 간척사업의 예를 들고 있다. Bailey(1971, pp.143~144, 151).

(8)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이 될 터이나 최근 연구들은 자생적 요인만으로는 회복이 훨씬 더디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 Romer(1992), 영국 Kitson and Solomou(1991, ch.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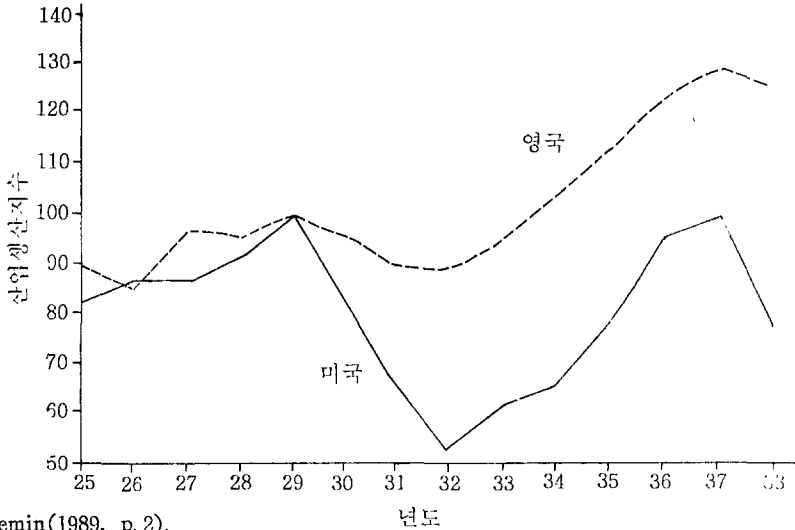
구체화하여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팽창적인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의 총체적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그 전달경로는 어떠한하였고 수요창출의 始發點은 어디인가(예를 들어 미국의 공공사업이나 영국의 주택건설 등). 둘째, 산업별로 또한 지역별로 바람직한 부문, 즉 연쇄효과나 유발효과가 큰 부문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실제 투자가 이들 부문에 집중되었는가. 가장 침체되고 실업이 집중된 부문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실제투자의 유발효과에 힘입어 이들 부문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증대되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産業聯關分析技法이 유용할 것이다. 경기회복의 성격, 산업구조와 경기회복과의 관련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비교할 때 경기회복과정에 있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산업구조 등 經濟的 特性의 차이에 따라 경기회복의 요인과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통점은 무엇이고 상호작용의 형태 및 결과는 어떠한가.

이 글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우선 회복기의 상황을 개관한 후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연구에 부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식별한다. 3절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분석기법을 소개하며 분석에 이용된 자료를 해설한다. 또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재분류하는 등 자료를 가공, 보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위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모색한다.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요약, 결론 및 시사점과 차후 연구과제의 제시가 마지막절의 내용을 이룬다.

2. 既存研究의 檢討

전간기 미국과 영국의 GNP추이는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대공황 발발 이후의 산업생산지수의 변동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그림 3>은 실업률을 보인 것인데 이들 그림에서 互視的인 回復趨勢를 읽을 수가 있다. 1933년이후 경기회복의 요인을 설명하는 기존연구를 검토하기 전에 각 部門別 景氣變動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불황 및 실업은 대략 그 심도에 따라 건설, 직물, 철강, 가죽제품 및 탄광에 집중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조선, 철강, 탄광, 직물, 일반기계 및 건설이 취약부문이었다. 비교적 타격을 덜받은 산업은 미국의 경우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 가스수도등 공익사업과 서비스였으며 영국은 인쇄출판, 공익사업, 전기기계, 화학, 식품 및 연초제조업이었다. 산업별 실업률은 미국의 제15회, 제16회 센서스(1930, 1940) 및 영국의 Ministry of Labour



資料 : Temin(1989, p. 2).

<그림 2> 産業生産指數(1929=100)



—U.S.: Lebergott-BLS ——U.S.: DarbyU.K.: 실업보험대상자중실업률 ---U.K.: 총실업률
 資料 : U.S.—Smiley(1983)
 U.K.—Feinstein(1972)

<그림 3> 美國과 英國의 失業率 : 1919~1941

Gazette(1925~39)에서 구하였고 이들은 비교의 편의를 위해 각각 24개의 共通된 産業分類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가 <表 1>에 나타나 있다. 미국의 경우 센서스분류를 24개 부분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고 영국의 경우 월별자료, 특히 12월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계절적 요인 때문에 <表 1>에 보인 통계치가 다른 목적으로 집필된 기존문헌에서 작성한 부분적 통계들과 상이함을 밝혀둔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으로부터의 回復要因을 거시적인 유효수요확장에서 찾는 것이 전통적

〈表 1-a〉 部門別 失業率：美國，1930，1940

산 업	1930			1940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1. 농림업, 수산업	10,722,467	168,848	1.57	8,475,432	393,869	4.4
2. 석탄, 코우크스	621,661	133,357	21.45	527,025	83,570	13.7
3. 광업, 비금속	509,229	67,570	13.27	539,101	56,196	9.4
4. 화학, 석유	269,385	19,436	7.21	641,025	33,985	5.0
5. 철강제품	652,312	70,711	10.84	1,263,215	113,173	8.2
6. 비철금속	449,173	57,887	12.89	279,454	19,687	6.6
7. 조선	37,321	4,840	12.97	153,364	9,764	6.0
8. 기계	1,323,527	107,876	8.15	697,566	36,000	4.9
9. 전기기계	436,589	43,512	9.97	374,684	25,283	6.3
10. 자동차	701,967	77,905	11.10	574,931	42,201	6.8
11. 항공	3,406	307	9.01	107,131	3,538	3.2
12. 철도	124,644	10,784	8.65	45,377	4,391	8.8
13. 방직, 방적	1,379,685	152,736	11.07	1,170,024	102,677	8.1
14. 의류	504,202	50,903	10.10	780,664	93,825	10.7
15. 가죽, 피혁	382,507	38,016	9.94	364,443	36,054	9.0
16. 식품가공	660,343	68,199	10.33	1,201,593	119,202	9.0
17. 목재	878,796	93,770	10.67	938,577	101,309	9.7
18. 제지	181,919	13,246	7.28	328,241	18,636	5.4
19. 인쇄, 출판	332,669	20,808	6.25	630,677	42,090	6.3
20. 고무	109,958	12,051	10.96	159,021	10,154	6.0
21. 기타공업	714,946	203,922	28.52	526,110	56,993	9.8
22. 건축	2,418,895	467,183	19.31	2,056,274	708,866	25.6
23. 가스, 수도, 전기	n.a.	n.a.	n.a.	542,382	23,085	4.1
24. 서비스	23,042,458	1,025,731	4.45	6,382,875	1,080,335	14.5
전 체 산 업	46,458,059	2,909,598	6.26	28,759,186	3,214,883	10.1

註：1) 1930년의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는 10세 이상, 1940년의 취업자 및 실업자는 16세 이상.
 資料：1930년은 U.S. Bureau of Census(1933), *Abstract of the fifteenth Census of the U.S.*, pp. 478~482를, 1940년의 것은 *the 16th Census(1940)*, Population, Vol. 3, Labor Force, Table 74, pp.180~183을 이용해서 계산.

이었다. 팽창적인 재정, 금융정책에 의해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 및 고용이 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정책에 관한 한 공공지출이 각급 정부수준에서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完全雇傭財政構造”의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30년대를 통틀어 흑자재정기조가 유지되었으므로 케인즈적인 승수효과가 없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팽창적 재정정책은 그 결과가 미미해서가 아니고 정책자체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회복방안이 되지 못하였다”[Brown(1956, p.863)].⁽⁹⁾ 연방정부의 공공사업들은 그

(9) 완전고용 흑자(full employment surplus) 개념을 이어받은 Peppers(1973)는 더욱 강한 결론을

〈表 1-b〉 部門別 失業率：英國，1930年과 1939年

산 업	1930			1939		
	실업보험 대상자	실업자	실업률(%)	실업보험 대상자	실업자	실업률(%)
1. 농림업, 수산업	27,990	5,850	20.9	741,880	57,774	7.8
2. 석탄, 코우크스	1,081,300	171,673	15.9	852,610	48,777	5.7
3. 광업, 비금속	353,620	51,629	14.6	377,690	30,140	8.0
4. 화학, 석유	217,900	25,308	11.6	118,210	4,374	3.7
5. 철강제품	782,590	118,741	15.2	990,950	40,658	4.1
6. 비철금속	99,690	14,988	15.0	110,250	3,030	2.7
7. 조선	204,720	87,006	42.5	176,050	15,668	8.9
8. 기계	680,290	110,851	16.3	771,020	23,419	3.0
9. 전기기계	89,860	7,548	8.4	122,890	2,826	2.3
10. 자동차	266,230	30,789	11.6	471,470	16,223	3.4
11. 항공*	n.a.	n.a.	n.a.	n.a.	n.a.	n.a.
12. 철도	54,090	6,978	12.9	53,910	1,078	2.0
13. 방직, 방적	506,780	85,063	16.8	1,106,520	56,433	5.1
14. 의류	587,200	55,373	9.4	632,260	42,361	6.7
15. 가죽, 피혁	66,310	7,556	11.4	73,190	3,220	4.4
16. 식품가공	525,430	57,558	11.0	598,740	38,918	6.5
17. 목재	218,620	28,651	13.1	247,350	22,509	9.1
18. 제지	126,930	8,822	7.0	162,760	5,926	3.6
19. 인쇄, 출판	272,390	20,702	7.6	288,390	25,667	8.9
20. 고무	67,470	9,176	13.6	68,880	3,375	4.9
21. 기타공업	90,990	9,270	10.2	95,400	5,796	6.1
22. 건축	1,018,600	235,582	23.1	1,405,140	244,494	17.4
23. 가스, 수도, 전기	165,850	13,600	8.2	222,460	12,903	5.8
24. 서비스	3,648,480	471,527	12.9	5,203,640	508,014	9.8
합 계	11,153,330	1,634,244	14.7	14,891,660	1,213,583	8.1

註：1) *：11. 비행기는 10. 자동차에 합해서 계산

資料：Ministry of Labour Gazette, January 1931, pp. 24~27과 January 1940, pp. 42~27을 이용해
서 계산

효과가 미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다[Wright(1974), Anderson and Tollison(1991)].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중을 이룬다. 물론 聯邦準備委員會가 1933년 이후에도 공개시장매입이나 재할인율인하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던 비난이 없지 않으나[Friedmand and Schwartz(1963, pp. 511~514)] 1933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통화량(M_1)이 연평균 거의 10퍼센트씩 증가하였던 사실은 부인

도출하였다. 그러나 Renaghan(1988)은 “가중표준흑자”(weighted standardized surplus) 개념을 이용, 이들이 추제한 재정정책의 긴축적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고율의 지속적 통화량증가는 1930년대초 금융공황의 여파로 통화승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가 같은 기간 연율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데 기인한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가 급증한 것은 1933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하고 달러화를 평가절하한 이후 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資本流入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명목이자율이 낮아졌다. 상업어음할인율은 1933년 한해에만 2.63%에서 1.25%로 떨어졌고 1934년이후에는 거의 0에 가깝게 되었으며 회사채 수익률도 신용평가순위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1933~1936년간 4.5% 수준에서 3.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통화팽창이 이자율하락을 통하여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전달메카니즘을 받아들인다면 명목이자율보다 투자지출결정에 요인으로 등장하는 事前的(ex ante) 實質利率을 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괴리는 물가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물가변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만족할 만큼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 추계된 사전적 실질이자율은 1933년에 급격히 하락하여 1937년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의 값을 보이고 있다.⁽¹⁰⁾ 이자율하락은 고정자본투자와 내구소비재 수요를 자극하여 1933년부터 경기회복을 주도해왔고 기타 소비재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그 이후로 미루어졌다. 이와 같이 유효수요증대가 재정팽창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통화량증가에 의한 이자율하락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2차대전 이전에 이미 미국은 경기회복을 거의 완전하게 달성하였고, 전쟁의 효과도 군비지출보다는 전쟁발발전 유럽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의한 통화팽창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결론도 가능하다[Romer(1992)].

거시적인 회복요인이 재정지출쪽에 있든 통화팽창쪽에 있든 간에 유효수요의 증대가 어느 산업부문, 어느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그 파급효과는 어떠하였는지를 微視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 절 이하로 미루고 여기서는 대공황 탈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뉴딜(New Deal) 政策의 몇 가지 면모를 살펴보자. 이제 거의 정식화되어 있는 구분에 따라 정책의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救護對策(relief): 긴급은행법안, 연방긴급구호국(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 민간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농가신용법(Farm Credit Act), 토목사업단(Civil Works Administration),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둘째, 景氣浮揚策(recovery): 산업부흥

(10) 이 방법은 Mishkin(1981)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인데 사전적 실질이자율과 사후적 실질이자율의 차이가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관계에 착안하여 사후적 실질이자율을 같은 기간과 시차를 둔 여러 정보에 회귀한 후 회귀식에 의거한 예측치를 사전적 실질이자율로 간주하는 것이다. 최근의 추계결과는 Romer(1992, <그림 8>) 참조.

법(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 공공사업단(Public Works Administration),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금, 은 매입프로그램, 주택보급, 재건금융금고(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등 대부기관, 셋째, 改革措置: 테네시계곡개발사업(Tennessee Valley Authority),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증권감독원(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농촌전력화사업(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연방준비제도를 개혁한 1935년의 은행법, 와그너노동법(Wagner Act)과 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¹¹⁾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 호불호를 떠나 장기적, 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들 평가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다. 1933년에 시작된 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은 당시 유럽에서 수행되었던 정책보다 훨씬 급진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미국민에게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다양한 면모를 가진 뉴딜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경기회복과 관련된 조치들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産業復興法(NIRA)을 보자. 이것은 주당 35내지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시간당 40센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고령자 및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또한 아동노동을 통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상시엔 모르겠지만 대공황기의 이와 같은 입법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인상의 요인만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비효율적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여 노동비용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말미암아 실업률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대공황의 혼돈은 더욱 심화되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자 전반적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NIRA가 위헌판결을 받기까지의 2년만에 실업률이 NIRA가 없었을 가상적 경우에 비해 무려 5%포인트나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추계가 있다[Weinstein(1980)]. 농업부문에서도 정책실패의 예가 나타나고 있다. 農業調整法(AAA)은 주로 과잉생산과 수요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작지감축을 목표로 신용축소정책을 수행했던 바, 결과는 소작농의 임노동자화 및 농촌으로부터의 축출효과를 초래하여 산업공황을 오히려 깊게 만들었으며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사회문제를 노정시킨 면이 크다는 것이다[Whatley(1983)]. 농업조정법도 정부의 간섭이 지나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지만 곧 다른 형태로 다시 시행된다. 이와 같이 정책오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한 가지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와그너법(Wagner Act)이다.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11) 이와 같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류를 달리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Bernstein (1987, p. 184)을 따랐다.

〈表 2〉 GNP에 대한 政府支出의 比率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1902~1960 (단위 : %)

년도	총 지출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전 체	군비지출의	전 체	교 부 금의	전 체	교 부 금의
1902	6.9	2.4	1.7	0.8	0.8	4.0	3.7
1913	8.0	2.4	1.8	1.0	1.0	4.9	4.6
1922	12.6	5.1	3.9	1.9	1.8	6.2	5.7
1927	11.7	3.7	3.0	2.1	2.0	6.6	6.0
1932	21.4	7.4	6.1	4.9	4.5	11.0	9.6
1936	20.3	11.1	10.0	4.7	3.8	7.3	5.4
1940	20.5	10.1	8.5	5.2	4.6	7.7	5.8
1950	24.7	15.7	9.3	5.3	4.5	6.0	4.4
1960	30.0	19.3	9.6	6.3	5.0	7.8	5.8

資料 : Wallis(1985, p. 18).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임금인상압력을 가중시킨 면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당시 노동민들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황심리를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대공황탈피의 기점으로 삼는 설도 많다[Chandler(1970, chs. 8, 12-13), Fearon(1987, Part III)].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이에 대하여 생소한, 그러나 약간 설득력있는 논지를 펴는 학자들이 있다. 뉴딜이 대공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민간기대를 반전시키는 體制的 變化(régime change)를 가져왔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잘 되어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잘 되어간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뉴딜은 개별적 경기대책의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발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개혁조치를 통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잠았다”는 것이다[Temin and Wigmore(1990)].⁽¹²⁾

뉴딜, 즉 여러 구호대책과 경기부양책, 그리고 개혁조치들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급정부의 豫算規模를 확대시키고 정치권력을 연방정부에 집중시켰다.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정부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갖는 것은 당연하나 대공황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지출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였고, 뉴딜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¹³⁾ 뉴딜정책이 경기회복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정부가 경제 및 사회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12) 이는 Sargent(1983)의 생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13) Wallis(1985)는 중앙정부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므로 뉴딜은 “재정적으로는 집중되어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분권화된” 사업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32년 이후 영국의 景氣回復을 설명하는 가설들은 다양하다. 1931년의 금본위이탈과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신용팽창에 따른 이자율하락과 투자증가, 1932년의 일반관세도입과 장기자본수출의 규제,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업가들의 낙관적 기대, 주택건설호황, 직물·철강·조선 등 구산업의 침체와 대비되는 전기, 화학, 자동차 등 신산업의 급속성장, 그리고 193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군비지출 등등이 경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¹⁴⁾

미국의 경기회복기에 관한 문헌검토의 순서에 따라 영국의 경우에도 巨視政策의 효과부터 살펴보자. 맥밀란위원회(Macmillan Committee of Finance and Industry)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케인즈는 1930년에 이미 유효수요진작을 위해 公共事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무성을 지배하던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자재정에 의한 정부지출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정지출은 보정적이 아니라 順循環의(pro-cyclical)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규모 자체도 1935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Richardson(1967; Feinstein (ed.) (1983)에 재수목)].⁽¹⁵⁾ “不變雇傭財政構造”의 개념으로 보면 대공황 발발후 1933~34년까지 흑자가 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그 이후 재정긴축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재무장전비지출이 급증할 때에야 적자재정으로 돌아섰다[Middleton(1981)]. 그러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공공사업을 실시할 경우 당시 300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을 고용할만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승수의 값을 낙관적으로 크게 잡는다 하더라도 공채관리에 허덕이고 있던 정부로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재정지출 증가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추제도 발표되고 있다. 승수효과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심한 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났을 것인가도 회의적이다[Glynn and Booth(1983); 또한 O'Brien(1987) 참조].

맥밀란위원회에서 케인즈가 주창한 두번째의, 그리고 채택된, 경기대책은 保護貿易으로서, 관세의 도입에 의해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고 교역조건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유효수요 증대와 고용창출의 목표를 위해 1840년대 이후로 계속 견지되어왔던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한 영국은 1932년 거의 모든 제조업품 수입에 10퍼센트의 일반관세를 부과하였고 그 이후

(14) Winch(1969; Feinstein (ed.) (1983)에 재수목), Alford(1972) 등이 당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15) 재무성전래는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부가하여 균형재정의 유지가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유지하여 투자심리를 안정케한다는 설명도 포함한다.

상당품목에 대해 관세율인상을 단행하였다. 일반관세는 대외적으로는 기존교역대상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영연방국에서 수입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았으며 기존 교역대상국의 보복적 보호주의 정책을 심화시킨 면이 있는 반면 총수입액을 줄이는 효과는 컸다. 국내적으로는 영국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투자를 촉진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승수효과에 의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일반관세는 이하에서 곧 논의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와 함께 제조업체품수입성향을 떨어뜨렸으며 수입대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관세의 도입이 평가절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주장도 돋보인다[Kitson and Solomou (1991, ch. 4)]. 일반관세는 또한 보호율이 낮은 산업부문에 높은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효과를 갖는다. “實效保護率”을 계산한 연구들은 직물, 자동차, 화학, 비철금속, 유리제품 등이 보호를 많이 받았고 철강, 조선, 판유리, 전기 등은 비교적 보호를 못받은 산업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apie(1978)].⁽¹⁶⁾

아마도 경기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은 급박한 상황에 따른 金本位制 離脫일 것이다. 1931년 9월 금본위제 대신 변동환율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되었으며 수출증가, 수입감소, 고용증대를 통하여 영국경제는 튼튼해졌다. 고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거시정책은 국내경기회복만을 목표로 고안될 수 있게 되었다. 1932년 단기간의 불안정한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外換安定計定(Exchange Equalization Account)은 매우 성공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며 정책당국이 환율에 신경을 쓰지 않고 팽창적인 금융정책기조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던 것이다.⁽¹⁷⁾

금본위 이탈의 가장 큰 효과는 금융정책을 대외균형유지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독립적인 국내경기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低廉한 資金供給(cheap money)을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였는데 이는 국공채이자부담을 줄여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재무성의 전통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민간산업의 회복을 가능케한 직접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중앙은행 제한인율이 1932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16) Kitson, Solomou and Weale(1991)은 약간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철강이 상당정도 보호를 받았고 항공기, 주류, 담배 등이 보호를 덜 받은 상품에 포함된다는 등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30년의 Smoot-Hawley 관세의 효과에 관한 분석이 많다. 흔히 인건급피화정책으로 알려진 이 관세와 경기회복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검토 및 실효보호율 추계에 대하여 Hayford and Pasurka(1991), 김두일(1994) 참조.

(17) Howson(1980)은 외환안정계정(EEA)의 외환시장 개입은 국제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cheap money를 가능케 하려는 국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dirty” float가 아니었다고 정당화한다.

6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여 1939년까지 그 수준에 머물렀으며 장단기이자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특히 단기이자율(3개월 만기 bank bill 할인율)은 1932년 5%이상에서 1%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이자율의 급속한 하락은 전반적으로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경기회복을 주도하였으나 당시 투자의 한계효율(수익률)에 대한 기대심리가 호전된 것도 투자증대에 중요했다는 지적이 있다. 住宅組合(building society)의 신규대부이자율도 하락하여 경기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건설호황에 일조하였다. 건축산업은 당시 GDP의 약 3%를 차지하는 정도였으나 1933~34년간 GDP성장에 17%를 기여했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한 고용창출효과는 1932~35년간 증가분의 30% 정도가 되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주택건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낮은 이자율의 자금공급 이외에도 인구적 요인, 건축순환과 임대료규제의 완화, 취업자의 실질소득증가 등이 주택호황에 기여를 하였고 이와 함께 주택건설과 연관이 있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진작되어 이들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났다.⁽¹⁸⁾ 그러나 당시 주택건설은 새로운 산업의 입지인 남부·동부·중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통적 산업인 석탄, 직물, 철강, 조선 등이 침체되어 실업의 폐해가 가장 컸던 북부나 웨일즈지역에 파급효과를 준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후반에 군비지출증가가 가진 연쇄효과가 구산업쪽으로, 또한 구산업의 입지쪽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1930년대 전반에도 연쇄효과를 고려한 팽창적 재정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팔목할만하다. 결국 값싼 자금(cheap money)의 효과는 제조업 부문의 회복보다 建築部門의 호황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Thomas(1983)].

거시적인 경기부양책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서 언급할 만한 것은 직접적인 실업대책과 산업합리화운동 등이 있으나 이들은 효과가 미미하였거나 효과의 방향도 분명치 않으므로 지면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Eichengreen(1987), Hannah(1983, ch. 3) 참조]. 대신 경기회복이 자본주의경제의 自生的 復原力에 의해 가능하였는지 또는 여러가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물가 및 임금의 하락하여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에서 벗어났다는 가설은 당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실증이 되지 않는다.⁽¹⁹⁾ 1929~32년간 교역조건이 호전되어 소비수요를 증대시켰다는 설명은 일리가 있으나 1933~37년간에는 오히려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으므로 교역조건효과는 경기침체의 정도를

(18) Worswick(1984)은 주택건설호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9) Beenstock et al.(1984, p. 65)가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1932년 이후 실질임금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그들의 그림 35, 36) 당시 임금추세가 고용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Dimsdale(1984, Table 1, p. 95)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회복기간중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Crafts(1989) 참조. 미국의 경우에도 경기회복기간인 1933~1937년동안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차명수(1992) 참조.

약화시킨 것에 불과하고 경기의 자생적 회복과정으로 보기는 힘들다. 기술진보와 수요구조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 산업에서 자동차, 정밀기계, 염료, 화학제품, 내구소비재 등 신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었다는 설명도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경기회복기간중 이들 새로운 산업의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이들 산업이 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경기회복은 오히려 전통적인 산업에서 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지 모른다.⁽²⁰⁾ 이와 같이 자생적 회복능력만 가지고는 대공황에서의 회복요인을 찾기 힘들며 이상 살펴본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이라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경기회복과정의 共通點은 시기가 약간 다르고 정책의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금본위제를 이탈하였으며(미국 1933년; 영국 1931년) 통화량이 팽창하고 이자율이 낮아져서 투자와 내구소비재지출 수요가 진작되었다는 것이다. 보호관세도 그 시기와 형태는 달랐으나 영국에 도입되었다(미국 1930년 Smoot-Hawley 관세; 영국 1932년 일반관세). 적자재정을 통한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하지 않은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국에 비슷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구호대책, 경기부양책, 개혁조치로 이루어진 미국의 뉴딜정책과 그 모습은 다르지만 영국에서도 실업보험제나 산업합리화운동 등 즉흥적인 미시적 조치가 시도되었다. 그렇다면 양국의 경기회복과정의 相異點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각 정책의 시기와 형태가 달랐음에 기인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양국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 양국의 사회경제구조 특히 산업구조가 서로 같지 않았음에 그 연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절에서는 당시 작성된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양국의 산업구조를 비교하고 특별히 경기침체나 실업이 집중된 부문을 식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별 연쇄효과에 따라 어느 한 곳에서 투자수요가 증대했다 하더라도 여타 산업에 생산 및 고용증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산업연관 분석에 의해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회복경기의 파급경로를 구명하고 산업구조와 경제정책의 유효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시행된 것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정책이 있었는가, 실행가능했는가, 왜 채택되지 않았는가 같은 더욱 의욕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 Richardson(1962), Aldcroft(1986, ch. 6) 등이 신산업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고 Buxton(1975), von Tunzelmann(1982) 등이 이들의 가설에 비판적이다. 또한 Kitson and Solomou(1991, pp. 95~99) 참조.

3. 分析의 方法과 資料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동안 국민경제내에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처분과정의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 통계표이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에는 각 산업간, 그리고 산업과 다른 경제부문들간의 모든 경제거래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과 타경제부문, 그리고 산업들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역시 산업과 타부문에 걸쳐 개별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은 일반적인 거시경제분석이 간과할 수 있는 산업의 具體的 聯關關係를 세밀히 파악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시경제분석이 특정산업에 국한된 것인데 반하여 산업들간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派及經路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공황으로부터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탈출하였느냐를 분석하는 데 있어 팽창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총체적 효과 및 산업별 효과, 그리고 산업연관관계를 통한 파급경로를 파악하게 해주는 산업연관분석은 유용한 분석수단이라고 하겠다.

산업연관표는 표의 형식에 따라 閉鎖模型(closed model)과 開放模型(open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쇄모형은 1939년 미국경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레온티에프 교수가 작성한 산업연관표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데, 이 모형에서는 개방모형에서 외생부문으로 취급하는 부문을 내생부문인 산업으로 간주하여 모든 부문을 내생화하였다. 즉 경제내의 모든 부문 상호간에 재화와 용역이 교환되고, 모든 부문이 생산과 소비를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방모형에서처럼 소비만 하고 생산은 하지 않는 부문(예를 들어, 가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외생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이 체계에서는 특정해가 존재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해(solution)가 있을 수 있다. 원래 레온티에프는 예를 들어 노동을 가계의 산출로 보고, 가계소비를 이를 위한 투입으로 보아 가계를 하나의 생산부문으로 취급하는 등 모든 부문을 內生化하여 폐쇄모형을 만들었던 것이다.

개방모형은 재화와 용역의 배분을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투입면에서는 생산을 위한 원재료등 중간투입과, 노동등의 원초적 투입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최종수요부문과 원초적 투입부문을 開放部門(open sector)으로 취급한 것이다. 따라서 개방부문에 해당하는 최종수요와 원초적 투입은 내생부문인 산업과는 일방거래만을 행하고 있으

며 상호간에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개방부문의 값은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이에 따라 산업부문에 관한 특정해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작성되고 있는 산업연관표는 대부분 개방모형이다. 그리고 레온티에프逆行列을 이용하여 산업의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방모형의 산업연관표가 요구된다.

〈附表 1-a〉는 Leontief(1951)가 만든 1939년 미국의 산업연관표이며 〈附表 1-b〉는 Barna(1952)가 만든 1935년 영국의 산업연관표이다. 〈附表 1-a〉은 4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부문이 내생으로 처리된 폐쇄모형이다. 반면 〈附表 1-b〉는 38개 부문으로 구성된 개방모형이다. 개방모형인 경우에는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역행렬계수를 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폐쇄모형인 경우에는 개방모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몇개의 부문을 외생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례적으로 개방모형의 外生部門에는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 정부부문의 소비 및 투자, 수출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1939년 미국의 산업연관표에서 37부문 무역, 39부문 정부·가계, 41부문 제조, 42부문 미배분(unallocated)을 외생적으로 전환시켜서 개방모형을 만들었다. 전환기준은 오늘날의 개방모형에서 외생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내생으로 처리된 부문 중에서 몇 개의 부문을 추출하여 외생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생부문에 해당하는 레온티에프의 A행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과 미국과 영국의 산업연관관계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연관표를 개방모형으로 만들면 이번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생산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생산유발계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나 있는 계수는 투입계수라고 부른다. 이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등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의 단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투입계수와는 다르게 부가가치투입계수가 있다. 이는 중간재투입액이 아닌 부가가치액, 즉 임금, 이자, 이윤, 제세공과 등의 원초적 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계수와 투입계수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소득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입계수의 집합을 投入係數行列(A)이라고 부르며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될 生産誘發係數는 $(I-A)^{-1}$ 행렬의 원소이다.

$(I-A)^{-1}=I+A+A^2+A^3+A^4+A^5+\dots$ 로 표시할 수 있다.⁽²¹⁾ 여기에서 I는 최종 수요

(21) 물론 $(I-A)^{-1}$ 의 형태가 Hawkins-Simon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필요한 생산을 말하며, A 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투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1차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A^2 은 1차 생산유발로 나타난 생산을 위해 필요한 투입으로서 2차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하 A^3, A^4, \dots 은 같은 논리로 3차, 4차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I-A)^{-1}$ 는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 1단위의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포괄하는 수치(생산유발계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수는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多部門乘數(multi-sector multipli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원소를 r_{ij} 라고 하면 r_{ij} 는 j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 1단위의 증가에 의해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i 산업에서의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유발수행렬의 列합계는 그 列에 해당하는 산업부문(j)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모든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j 가 건설 부문이라고 하면 건설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합이 $\sum_i r_{ij}$ (j =건설부문)이다. 이것은 건설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철근, 시멘트, 목재 등 여러 산업부문의 생산유발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철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산업부문의 생산유발 등 건설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생산활동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産業部門別乘數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산업연관표를 비교하기 위해 각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을 통합하여 동일한 구조를 만들었다. 내생부문이 24개로 되게끔 정리하였는데 양국의 산업부문을 재분류한 것이 <附表 2>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으로 분류한 미국 및 영국의 산업연관표가 각각 <附表 3-a>, <附表 3-b>이다. 또 양국의 산업연관표의 레온티에프역행렬은 각각 <附表 4-a>, <附表 4-b>에 나타나 있으며,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구한 것이 <表 4>에 요약되어 있다. 영국의 고용계수는 Chapman(1953)에서 구하였다.

이에 덧붙여 고용·실업, 자본형성 등에 대한 자료[Bernstein (1987), Feinstein (1965)]도 이에 따라 재분류하여 <表 1>과 <表 3>에 제시하였다. 산업부문의 재분류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이 있고 자료가 빠진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이후의 분석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表 3-a> 美國의 産業別 純投資額, 1932~1938

산 업	순투자액(1972년 가격, 단위:천달러)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 농업*							
2. 석탄, 코우크스*							
3. 광업, 비금속	-93,749.5	-48,187.5	-54,213.8	-60,036.0	441,797.9	322,237.2	119,303.4
4. 화학, 석유	-312,049.4	28,693.9	-369,208.7	-156,265.3	244,051.4	27,861,999.7	154,759.5
5. 철강제품*							
6. 비철금속*							
7+10+11+12	-50,682.5	-231,627.5	-103,197.7	-205,701.8	-41,792.9	29,442.5	-79,473.0
7. 조선							
10. 자동차							
11. 항공							
12. 철도							
8. 기계	-73,042.4	-25,483.6	-86,637.4	-16,737.9	80,884.2	139,993.6	64,152.9
13. 방직·방직	-283,134.9	-213,618.8	-246,951.6	-189,511.7	-212,636.1	-232,289.4	-191,003.2
14. 의류	-2,799.2	-6,287.0	29,053.5	47,404.8	28,636.9	3,905.6	-8,650.5
15. 가죽, 피혁	-12,979.5	25,295.5	13,856.0	-176.7	-9,190.1	4,487.9	-12,679.4
16. 식품가공	-63,767.9	557,217.6	285,442.6	147,926.0	202,737.9	482,072.4	111,488.0
17. 목재	-196,073.1	-176,225.7	-161,530.5	-173,879.9	-116,013.1	-168,392.2	-168,679.9
18. 제지	-30,838.3	-102,885.4	-47,381.3	-77,979.0	-43,006.6	42,345.7	-22,061.7
19. 인쇄·출판	-252,285.1	-256,838.9	-394,049.9	-354,781.8	-142,155.3	0.0	-327,194.5
20. 고무	-22,880.1	-29,345.9	-12,625.1	-2,438.5	-18,964.2	13,626.6	1,330.8
21. 기타공업*							
22. 건축*							
23. 가스, 수도, 전기*							
24. 서비스*							
1차금속	-639,827.5	-982,326.4	256,867.5	83,417.8	-119,594.6	67,584.2	-818,143.1
2차금속	-79,250.3	-31,869.2	-80,061.5	-72,400.3	-80.3	185.5	5,038.4

註: 1) *: 구할 수 없음.

資料: Bernstein(1987, pp. 115~118).

4. 分析結果와 解析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업부문별 승수를 구한 결과가 <表 4>이다.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 모두 건설부문의 승수는 평균크기를 넘어서고 있으나 그렇다고하여 부문중에서 최상위수준은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직물, 철강, 조선 등 구산업의 승수가 높은 편이었고 "신산업"의 경우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높지 못

〈表 3-b〉 英國의 産業別 總投資額, 1932~1938

산 업	총투자액 (1930년 가격, 단위 : 백만파운드)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 농업	3.0	2.0	4.0	4.0	6.0	7.0	5.0
2. 석탄, 코우크스	4.9	7.5	7.4	5.6	7.9	7.3	7.9
3. 광업, 미금속	2.6	2.6	5.5	3.9	5.5	5.9	4.7
4. 화학	4.3	4.2	8.2	8.6	9.7	10.8	8.3
5. 철강제품	8.6	8.1	12.4	10.4	15.5	20.5	19.0
6. 비철금속	1.4	1.8	2.5	2.9	3.1	4.0	3.0
7+8+12	5.3	5.4	8.5	7.7	8.7	13.5	11.8
7. 조선							
8. 기계							
12. 철도							
9. 전기기계	2.3	2.0	2.6	3.9	3.7	3.9	4.8
10+11	5.8	3.1	4.7	6.2	6.4	9.0	7.5
10. 자동차							
11. 항공							
13. 방직·방직	6.7	4.1	8.1	9.1	11.7	9.6	8.0
14. 의류	2.1	1.8	1.5	1.9	1.6	4.2	3.6
15+20	3.1	1.3	1.6	1.0	0.8	1.3	1.5
15. 가죽·피혁							
20. 고무							
16. 식품가공	5.7	7.1	9.7	9.0	12.0	9.9	11.2
17. 목재	0.4	3.8	7.3	5.5	2.8	5.5	5.0
18. 제지	2.3	5.2	3.1	3.4	3.1	5.3	3.8
19. 인쇄·출판	2.4	2.6	4.1	5.3	6.9	6.6	5.1
21. 기타 공업	1.3	2.2	1.6	1.8	2.5	3.5	1.9
22. 건축	128.0	168.0	188.0	179.0	178.0	167.0	165.0
23. 가스, 수도, 전기	58.0	52.0	54.0	61.0	65.0	57.0	60.0
24. 서비스	123.0	99.0	132.0	157.0	180.0	196.0	218.0

資料 : Feinstein(1965)

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함께 화학공업 등의 승수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산업의 단순평균치로 보아 승수의 크기가 미국은 1939년에 1.88로서 영국 1935년의 1.55보다 크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산업부문간 상호의존도가 미국이 더 높았다는 것, 즉 각 산업에서의 투자증대가 경제전체에 파급되는 효과가 더 컸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영국경제의 輸入依存도가 미국보다 높았다는 사실에 의해 일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승수의 크기는 산업부문간 상호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바 만약 수입에의 의존도가 클 경우에는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당연히 國內의 생산효과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영국의 수입의존도가 컸던 관계로 영국내 산업에

〈表 4-a〉 生産誘發係數, 所得誘發係數, 輸入誘發係數, 勞働誘發係數: 美國, 1939年

산 업	생산유발수	소득계수	소득유발수	수입계수	수입유발수	노동계수	노동유발수
1. 농림업, 수산업	1.9037	0.4126	0.7543	0.0274	0.0418	0.00087	0.00111
2. 석탄, 코우크스	1.9768	0.2774	0.7089	0.0022	0.0106	0.00022	0.00045
3. 광업, 비금속	1.9476	0.2478	0.5762	0.0131	0.0284	0.00014	0.00032
4. 화학, 석유	2.0912	0.1345	0.5345	0.0151	0.0297	0.00006	0.00027
5. 철강제품	1.7919	0.3152	0.5857	0.0026	0.0161	0.00020	0.00034
6. 비철금속	2.1007	0.2187	0.5044	0.1136	0.2116	0.00009	0.00022
7. 조선	1.6570	0.5055	0.7126	0.0000	0.0175	0.00028	0.00039
8. 기계	1.5493	0.3516	0.5652	0.0028	0.0119	0.00018	0.00029
9. 전기기계	1.8538	0.2842	0.6035	0.0018	0.0180	0.00016	0.00032
10. 자동차	2.5616	0.1840	0.6820	0.0004	0.0264	0.00009	0.00035
11. 항공	1.5186	0.4726	0.6377	0.0000	0.0202	0.00023	0.00031
12. 철도	1.7233	0.3018	0.5433	0.0036	0.0186	0.00017	0.00031
13. 방직, 방직	1.9276	0.1982	0.5257	0.0695	0.0932	0.00023	0.00051
14. 의류	2.3033	0.1932	0.6581	0.0093	0.0453	0.00019	0.00053
15. 가죽, 피혁	2.1166	0.2061	0.5830	0.0114	0.0309	0.00021	0.00046
16. 식품가공	2.1833	0.1146	0.5779	0.0440	0.0671	0.00007	0.00052
17. 목재	1.9768	0.2458	0.6105	0.0124	0.0252	0.00025	0.00049
18. 제지	2.0216	0.1895	0.5278	0.0790	0.1158	0.00012	0.00034
19. 인쇄, 출판	1.7340	0.4130	0.6570	0.0036	0.0275	0.00021	0.00034
20. 교무	1.7171	0.2210	0.5071	0.1685	0.1834	0.00013	0.00029
21. 기타공업	1.6784	0.3225	0.5937	0.0261	0.0406	0.00019	0.00033
22. 건축	1.8963	0.5202	0.7943	0.0000	0.0141	0.00010	0.00027
23. 가스, 수도, 전기	1.5339	0.5347	0.7245	0.0102	0.0181	0.00016	0.00025
24. 서비스	1.4489	0.5241	0.6863	0.0058	0.0133	0.00027	0.00036
평 균	1.8839	0.3079	0.6189	0.0259	0.0469	0.00020	0.00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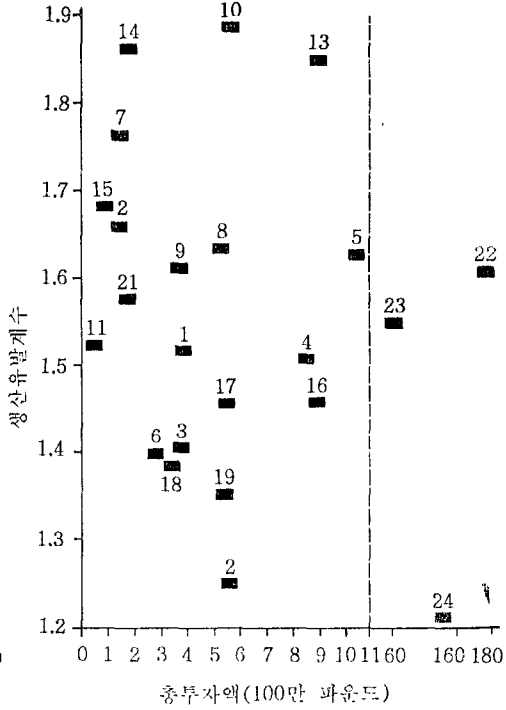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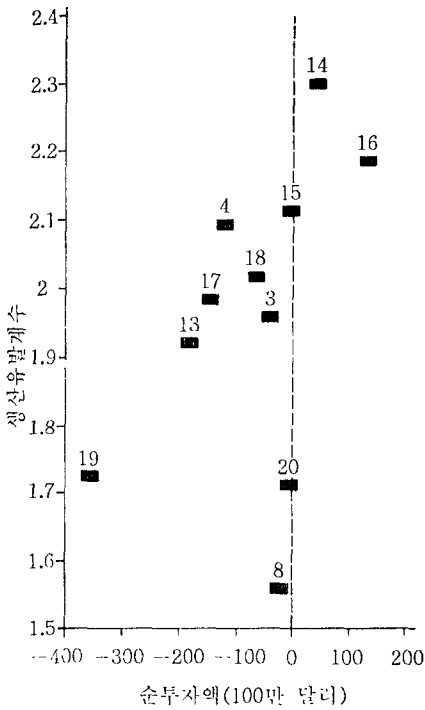
의 파급효과는 작을 것이다.

이제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부문별 승수가 큰, 즉 연쇄효과가 큰 산업에 주요투자가 집중되었던 것인가. 産業別 投資規模에 대한 자료는 아직 빈약한 실정이지만 Bernstein(1987)과 Feinstein(1965)의 연구결과를 우리는 24개 산업분류로 집계하여 요약한다면 〈表 3〉과 같다. 이 표에서 뽑은 투자액과 부문별 승수의 크기와의 관계를 보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승수효과가 큰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에 양자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적 팽창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투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각 산업별로 개별적인 사전적 투자수익률이 연쇄효과를 고려한 경제전체적인 사후적 수익률과 일치하지 않는 市場失敗要因이 작용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

〈表 4-b〉 生産誘發係數, 所得誘發係數, 輸入誘發係數, 勞動誘發係數: 英國, 1935年

산 업	생산유발수 계	소득계수	소득유발수 계	수입계수	수입유발수 계	노동계수	노동유발수 계
1. 농림업, 수산업	1.5169	0.4360	0.6454	0.0613	0.1111	0.0029	0.0037
2. 석탄, 코우크스	1.2439	0.2521	0.3345	0.0232	0.0361	0.0046	0.0053
3. 광업, 비금속	1.4057	0.3631	0.5054	0.0292	0.0509	0.0023	0.0033
4. 화학, 석유	1.5079	0.5752	0.7902	0.1979	0.2508	0.0011	0.0020
5. 철강제품	1.6252	0.6094	0.9163	0.1307	0.2007	0.0009	0.0019
6. 비철금속	1.3948	0.6941	0.8718	0.3427	0.3959	0.0010	0.0017
7. 조선	1.7575	0.5161	0.8792	0.0194	0.0873	0.0018	0.0033
8. 기계	1.6384	0.4419	0.7554	0.0278	0.0903	0.0025	0.0036
9. 전기기계	1.6171	0.4863	0.7827	0.0465	0.1137	0.0023	0.0035
10. 자동차	1.8820	0.5784	1.0354	0.0187	0.0947	0.0018	0.0032
11. 항공	1.5245	0.4097	0.6703	0.0208	0.0842	0.0018	0.0026
12. 철도	1.6504	0.4499	0.7706	0.0334	0.0995	0.0019	0.0030
13. 방직, 방적	1.8510	0.6844	1.1808	0.1614	0.2748	0.0022	0.0041
14. 의류	1.8609	0.5508	1.0574	0.0468	0.1645	0.0028	0.0047
15. 가죽, 피혁	1.6754	0.6921	1.0395	0.2378	0.3302	0.0018	0.0031
16. 식품가공	1.4527	0.4842	0.6763	0.1454	0.1922	0.0009	0.0016
17. 목재	1.4612	0.5284	0.7567	0.1978	0.2552	0.0025	0.0035
18. 제지	1.3806	0.5361	0.6982	0.2152	0.2622	0.0010	0.0016
19. 인쇄, 출판	1.3480	0.2889	0.4372	0.0309	0.0755	0.0026	0.0031
20. 고무	1.4665	0.5106	0.7533	0.1901	0.2466	n.a	n.a
21. 기타공업	1.5731	0.5083	0.7984	0.0785	0.1500	n.a	n.a
22. 건축	1.6071	0.4520	0.7134	0.0393	0.0875	0.0022	0.0034
23. 가스, 수도, 전기	1.5464	0.3835	0.5795	0.0029	0.0212	0.0011	0.0023
24. 서비스	1.2167	0.1681	0.2457	0.0061	0.0160	0.0025	0.0030
평 균	1.5502	0.4833	0.7456	0.0960	0.1538	0.0020	0.0029

로는 산업별 수익률에 따라 생산요소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 못했던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전부 制度的 構造의 原因을 살펴보아야 구명될 수 있을 것이며 단계에서의 경기회복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31년의 평가절하가 조금 더 일찍 단행되었을 가상적 경우를 상정하여 30% 정도의 평가절하와 그것이 수반하였을 팽창적 거시정책이 경제전체의 실업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었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하여는 오랜 논란이 있지만 최근 연구의 추세는 실업문제 해결에의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고용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산업별, 지역별로 경기침체가 편중되었던 것, 그리고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제한되었다는 것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유추해석하면 1930년대 경기회복기에서의 투자배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이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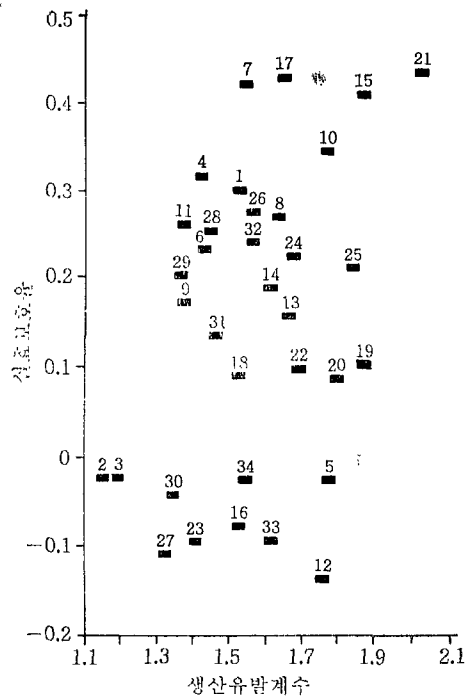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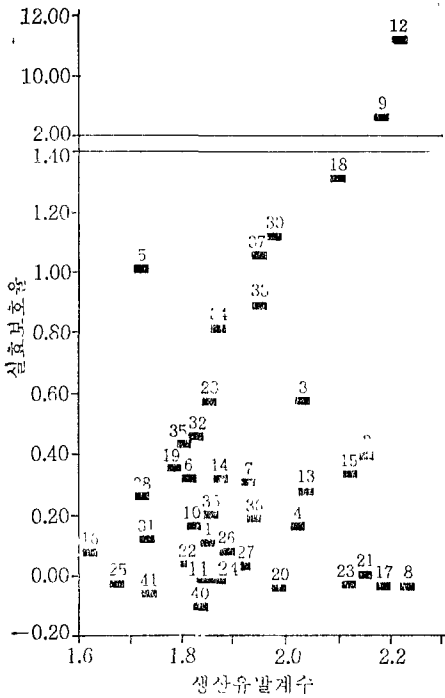


註: 1) 수자는 24개 분류 산업부문
 資料: 순투자액: Bernstein(1987, pp. 115~118).
 <그림 4-A> 投資—生産誘發係數: 美國, 1935年

註: 1) 수자는 24개 분류 산업부문
 資料: 투자액: Feinstein(1965)
 <그림 4-B> 投資—生産誘發係數: 英國, 1935年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나마 결과적으로 팽창적이 된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었다는 결론도 배척할 수 없다[Wolcott(1993, 특히 p. 624)].

이와 관련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산업들에 대한 關稅保護政策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 1932년 영국의 일반관세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2절에서 간략히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는 각 관세의 微視的 資源配分效果에 관해 살펴보자. 흔히 관세가 자국상품을 외국상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명목관세율이 사용된다. 그러나 명목관세율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과의 효과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실효보호율인데, 이는 관세가 그 상품의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보호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이와 같은 보호관세를 통해 수입대체산업의 국내생산이 증가하면 그 산업 뿐만 아니라 연쇄효과에 의해 관련산업의 생산도 증가하게 되어 경제전체적으로 경기가 진작된다. 관세의 경기부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효보호율이 높은 산업에서 부문별 승수



註: 1) 수자는 부문통합이전 산업부문
 資料: 김두열(1994, p. 56)

<그림 5-a> 生産誘發係數와 實效保護率: 美國 <그림 5-b> 生産誘發係數와 實效保護率: 英國

가 컸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된다. <그림 5>는 당시 미국과 영국의 실효보호율과 산업별 승수의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관계수는 미국이 0.3229, 영국이 0.3406으로써 횡단면자료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관세의 자원배분효과는 경기회복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김두열(1994, pp. 53~56)]. 각국의 보호정책이 교역대상국의 보복적 보호정책을 불러일으켜 국제무역을 총량적으로 위축시키는 면이 있으므로 거시경제적 부양효과를 낙관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關稅構造의 編成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경기침체가 극심하고 실업이 집중되었던 취약산업에 補整的 投資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실업구제정책이나 산업합리화정책 등이 이들 부문에 대해 시도되었고 불행히도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연구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의 관심의 대상은 오히려 집중된 투자의 연쇄효과로써 이들 특정한 침체부문에 생산이나 고용이 증대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적극적인 팽창정책의 예로 꼽히는 미국의 뉴딜공공사업과 영국의 금융지원,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꼽히는

〈表 5-a〉 뉴딜의 雇傭誘發效果 : 美國, 1936年

산 업	건축업의 생산유발 계수 1939	생산유발효과 (1,000달러)	고용계수	고용유발효과 (1,000)
1. 농림업, 수산업	0.0166	36,106.13	0.00087	31.49
2. 석탄, 코우크스	0.0158	34,253.11	0.00022	7.42
3. 광업, 비금속	0.2722	591,287.77	0.00014	84.07
4. 화학, 석유	0.0799	173,548.47	0.00006	9.63
5. 철강제품	0.0918	199,299.03	0.00020	28.87
6. 비철금속	0.0396	86,067.19	0.00009	7.89
7. 조선	0.0002	477.46	0.00028	0.13
8. 기계	0.0481	104,507.95	0.00018	19.06
9. 전기기계	0.0319	69,284.91	0.00016	10.79
10. 자동차	0.0012	2,569.95	0.00009	0.23
11. 항공	0.0001	194.69	0.00023	0.04
12. 철도	0.0005	1,152.84	0.00017	0.20
13. 방직, 방적	0.0028	5,974.34	0.00023	1.37
14. 의류	0.0000	86.06	0.00019	0.02
15. 가죽, 피혁	0.0002	506.14	0.00021	0.11
16. 식품가공	0.0065	14,195.04	0.00007	0.95
17. 목재	0.0951	206,474.97	0.00025	50.69
18. 제지	0.0126	27,421.26	0.00012	3.37
19. 인쇄, 출판	0.0045	9,711.26	0.00021	2.01
20. 고무	0.0011	2,470.07	0.00013	0.32
21. 기타공업	0.0035	7,650.48	0.00019	1.42
22. 건축	1.0161	2,206,955.27	0.00010	221.47
23. 가스, 수도, 전기	0.0081	17,506.01	0.00016	2.85
24. 서비스	0.1478	321,087.92	0.00027	85.68
합	1.8963	4,118,788.31		580.08
평균			0.00020	

註 : 1) * : 구호와 경기부양관련 지출액은 1936년의 경우 2,172,005,000달러였다. [Statistical Abstract (1937)]

주택건설호황이 연쇄효과를 얼마나 가져왔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도가 될 수 있다. 뉴딜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2절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1933~1939년간 연방정부의 총 뉴딜사업비 지출은 274억 3,5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연방정부 총지출의 55%에 달하는 수치이다[Statistical Abstract (1957), Anderson and Tollison(1991, p.164)]. 이중 구호대책과 경기부양책에 지출된 사업비는 1936년의 예를 들면 21억 7,200만달러로서 이것이 주로 建設業을 통하여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면 연쇄효과를 포함하여 같은 해에 41억 1,880만 달러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으며 5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뉴딜사업의 경기부양효과는 〈表 5〉에서 보는

<表 5-b> 建築部門의 雇傭誘發效果：英國，1936年

산 업	건축업의 생산유발계수 1935	생산유발효과 (1,000파운드)	노동계수	고용유발효과 (1,000)
1. 농림업, 수산업	0.0013	339.42	0.0029	0.97
2. 석탄, 코우크스	0.0175	4,475.22	0.0046	20.50
3. 광업, 비금속	0.1292	33,085.52	0.0023	76.91
4. 화학, 석유	0.0318	8,151.13	0.0011	8.81
5. 철강제품	0.1175	30,090.07	0.0009	25.82
6. 비철금속	0.0188	4,812.04	0.0010	4.65
7. 조선	0.0002	62.45	0.0018	0.11
8. 기계	0.0328	8,395.23	0.0025	21.07
9. 전기기계	0.0178	4,568.12	0.0023	10.65
10. 자동차	0.0019	478.18	0.0018	0.84
11. 항공	0.0000	0.00	0.0018	0.00
12. 철도	0.0039	996.91	0.0019	1.86
13. 방직, 방적	0.0097	2,484.33	0.0022	5.54
14. 의류	0.0001	18.86	0.0028	0.05
15. 가죽, 피혁	0.0005	139.89	0.0018	0.25
16. 식품가공	0.0011	291.81	0.0009	0.25
17. 목재	0.0372	9,515.06	0.0025	24.18
18. 제지	0.0064	1,628.70	0.0010	1.56
19. 인쇄, 출판	0.0041	1,058.34	0.0026	2.70
20. 고무*	0.0009	236.11	—	—
21. 기타공업*	0.0016	397.43	—	—
22. 건축	1.0558	270,272.04	0.0022	599.99
23. 가스, 수도, 전기	0.0111	2,835.83	0.0011	3.07
24. 서비스	0.1058	27,084.63	0.0025	67.63
합	1.6071	411,417.32		877.40
평 균			0.0020	

註：1) *：한 부분의 노동계수는 구할 수 없었다.

資料：1936년 건축부분의 지출액은 256,000,000파운드이다[Richardson and Aldcroft (1968)].

바와 같이 비금속, 광업, 목재, 서비스, 철강 등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철강의 경우만 제외하면 직물, 가죽제품, 탄광 등 경기침체가 심했던 분야를 자극한 정도는 미약하였다.

2절에서 이자율하락과 관련하여 언급한 영국 주택건설소황(1932~37)의 경기부양효과도 같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년간에 걸친 총체적 생산 및 고용효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으나 1936년의 예를 들면 건축부분의 총지출은 2억 5,600만 파운드로서 파급효과를 포함하면 4억 1,140만 파운드의 생산유발효과, 88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다. 이 역시 <表 5>에서 알 수 있듯이 비금속, 광업, 목재, 서비스, 철강, 기계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침체가 심했던 조선, 탄광, 직물 등에는 연쇄효과가 작았다. 그리고 투입산출표에

〈表 6〉 製造業의 構成比率：美國과 英國

(단위：%)

산 업	미 국		영 국	
	1931	1935	1930	1935
점토, 건축자재	2.3	2.1	2.7	3.0
화학	11.2	11.0	6.8	6.8
철강	8.5	10.2	8.9	10.0
비철금속	3.3	3.7	2.8	3.8
기계, 조선, 자동차	15.8	17.3	17.2	17.5
섬유	7.9	7.7	16.2	15.9
의류	6.8	5.7	6.7	6.4
가죽	3.0	2.7	1.3	1.2
식품, 음료, 담배	20.0	21.1	24.8	23.2
목재	4.1	3.7	2.6	2.4
제지, 인쇄	5.7	8.2	6.6	6.5
고무제품	1.5	1.5	0.0	0.0
기타	5.8	5.0	3.4	3.2
합	100.0	100.0	100.0	100.0

資料：Statistical Abstract(U.S., U.K.)

서는 철강에의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시기의 건축수요가 비교적 철강제품을 적게쓰는 住宅爲主였음을 생각할 때 그 효과는 주로 간접적인 것으로 만약 타부문의 생산유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실제로는 더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건축위주의 회복은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큰 구조적 불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양국의 산업구조를 비교검토하고 산업별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의 크기를 다시 살펴보는 일이 의미가 있다. 우선 1930년대의 제조업 생산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영국은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인 식료품, 섬유 등 생활관련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화학 등 자본집약적 신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미국은 자원부존정도를 반영하여 목재, 제지, 고무제품 등에서도 영국보다 약간 생산비중이 높았다[〈表 6〉 참조]. 〈表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직물, 철강, 조선, 기계 등 구산업의 승수가 높고 미국에서는 화학, 비철금속, 전기, 자동차 등 신산업의 승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두가지 특성을 종합하면 1930년대의 경기회복이 가속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는 어떠한 정책효과라도 舊産業에의 투자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보다 조선, 철강, 기계 등을 통하여 생산 및 고용을 촉진시킨 1935~38년간의 재무장사업같은 것이 경기회복

에 훨씬 강력하였다는 주장이 돋보인다. 즉 이전의 기간에도 산업연관효과를 그리고 지역적 효과를 고려한 투자지출정책이 고려되었다면 재정팽창이 매우 강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Thomas(1983, p. 572)]. 이와 같은 논의는 새로운 산업의 고속성장이 영국의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는 몇몇 학자들의 가설을 반박하는 것이다.⁽²²⁾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투자패턴이 승수효과가 큰 산업에 집중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비해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그림 4>에서 알 수 있었다. 이것과 (특히 <表 3>) 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에서 新産業의 비중이 컸다는 것을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투자배분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직접 작용하는 효과가 후시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근대적 대량생산 산업으로의 자원재배분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국의 경우에도 경기회복기의 투자증대가 주로 구산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 점을 오히려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과 불황시기에 構造調整의 속도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한다면 그만큼 단기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므로 총체적인 판단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1937년의 금융긴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강국면으로 돌입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재부장지출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해 볼만하나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²³⁾ 결국 거시총량지표에서 경기회복의 요인을 찾아내는 접근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미시적 자원배분과정을 고려하면 회복경기의 전달경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도 있게 된다.

5. 맺 음 말

위에서는 1930년대 미국과 영국의 경기회복과정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이 과정을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다양한 기존연구성과는 2절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나 금분위 이탈과 함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 및 내구소비재 수요가 증대된 것이 두 나라에 공통된 경기회복의 경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와 산업간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이 글의 分析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황 및 실업은 대략 그 심도에 따라 미국에서는 건설, 직물, 철강, 가죽제품 및 탄광에 집중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조선, 철강, 탄광, 직물, 일반기계 및 건설이 취약부문이었다. 둘째, 제조업 생산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영국은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의 식료품, 섬유 등 생활관련산업이

(22) 註 (20) 참조.

(23) Leontief(1986, 제 9 장)는 2차대전후 군비축소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화학 등 자본집약적인 신산업의 비중이 컸다. 미국은 자원부존정도를 반영하여 목재, 제지, 고무제품 등에서도 영국보다 약간 생산비중이 높았다. 셋째, 영국의 경우 직물, 철강, 조선, 기계 등 구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미국에서는 화학, 비철금속, 전기, 자동차 등 신산업의 승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산업의 평균치로 보아 승수의 크기가 미국이 영국보다 높게 계산되었으며 이는 산업부문간 상호의존도가 미국에서 더 높았다는 사실, 즉 각 산업에서의 투자증대가 경제전체에 파급되는 효과가 더 컸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산업별 투자분포를 관찰하면 승수효과가 큰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여 거시적 팽창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투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섯째, 투자액 분포는 경기침체의 취약도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으며 따라서 단기적 경기부양의 정도도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딜사업, 영국의 주택건설 호황의 연쇄효과는 산업별 지역별로 제한되어 나타났을 뿐이었다. 여섯째, 양국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산업구조의 특징에 힘입어 투자배분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복과정에서 산업별 투자배분이 바람직하게 수행되지 못한 배경으로서는 사전적 개별투자수익률이 연쇄효과를 고려한 사후적 수익률과 일치하지 않는 시장실패요인, 수익률에 따라 생산요소가 빠른 속도로 옮겨가지 못하는 자원이동성의 문제, 이와 같은 요인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실업 및 경기침체의 편중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를 밝히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次後의 研究課題로 다음과 같은 것을 남기고자 한다. 즉, 경기회복 및 장기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그 잠재적 효과를 평가하는 일이다. 또, 지역별로 불균등한 침체 및 회복과정을 조절하려는 지역정책의 효과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²⁴⁾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등으로 비교대상을 넓히는 일이다.⁽²⁵⁾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73

팩시 : (02)888-4454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75

팩시 : (02)888-4454

(24) Jones(1985), Thomas(1983), Leontief(1986, ch. 7) 등이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25) 일본의 1935년 산업연관표는 西川俊作・腰原久雄(1981)에 의해 작성된 바 있다.

〈附表 1-a〉 美國 產業 關係 表, 1939

(백만 달러, 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948	4,998													
2	643	1,527													
3	24		1,188	45	36	55	3	374		22	105	6	10	49	634
4			10		9	12	4	126		15	57	7	3	10	7
5	7	1			1										
6	400					1									
7	1				28	11	3		1	2					
8	158	2						1,589							
9									15						
10	4														
11	30	70	5	2				1			55			3	2
12			25			4	4	54	5	11	36	17	3	18	16
13															
14			2		3			81	1					330	2
15	21	305	1	2	23	17	9	208	4	14	49	6	11	61	32
16	5	23	108	2	21	6	6	85	21	5	32	3	2	98	52
17	14	137	29	13	1	1		60		4	10	4	1	31	8
18	403	53	94	6	2	2	2	21	16	2	14	2	1	14	16
19	2	49	202	11	1	3	1	12		1	10	1	1	7	10
20	64	66	42	11	3	3	1	18	1	1	26	4	4	15	18
21		7									1				1

陸 業 養 蠶 半 回 復 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미 국 1989															
22 학	357	133	36	7	8	2	1	31	2	4	3	—	3	39	26
23 목	46	—	—	—	2	—	—	9	—	—	—	—	—	8	—
24 가	47	16	—	—	—	—	—	9	—	5	7	—	3	18	6
25 펄	2	244	2	—	—	—	—	1	—	—	9	—	—	13	9
26 인	—	—	—	—	—	—	—	—	—	—	—	—	—	—	—
27 직	51	43	—	—	4	—	—	61	—	—	4	—	—	2	2
28 의	—	—	—	—	—	—	—	1	—	—	—	—	—	—	—
29 가	14	—	—	—	—	—	—	4	—	—	—	—	—	—	—
30 고	54	3	—	—	1	12	—	182	1	6	2	—	—	—	—
31 기	2	—	—	—	12	—	—	8	2	—	6	—	2	6	1
32 전	295	73	43	4	5	3	1	14	7	1	11	4	1	7	9
33 기	235	16	45	2	—	—	—	—	—	—	—	—	—	—	—
34 해	38	89	3	—	—	—	—	—	—	—	—	—	—	—	—
35 증	521	285	219	27	—	14	1	88	4	—	19	3	2	18	58
36 도	1,446	4,048	78	19	3	160	10	963	1	19	297	27	144	583	288
37 해	337	824	22	—	—	2	1	2	—	1	8	1	—	5	8
38 기	551	367	13	1	—	6	2	65	1	—	19	4	6	45	8
39 a. 경	355	1,828	100	19	9	14	4	230	18	10	83	22	19	114	85
b. 가	5,081	2,143	874	224	230	138	53	969	138	83	908	234	165	775	745
40 음	—	—	—	—	—	—	—	—	—	—	—	—	—	—	—
41 제	—	24	29	1	—	4	—	—	—	—	7	2	1	24	4
42 미	158	1,333	638	109	53	123	41	—	54	69	774	145	79	430	520
합	12,314	18,707	3,808	505	455	593	147	5,266	292	275	2,566	492	462	2,727	2,569
연	10,739	1,257.8	482.6	144.6	126	75.2	25.9	466	66.7	47.9	492.7	101.7	81.4	424.8	45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75	98	2	85		480	103		
2							47			7		25		131	
3	43								64						
4	2														
5															
6															
7			1		8		1			1					
8					1										
9															
10															
11	9	19	92	9	8		7	10	3	31	52	65	26	12	17
12	3														
13												1	3		
14					69	104									
15			43	1	3		39	5	58			1	6	5	
16	1,323	3	1	1	49	6	94				5	1			
17	6	281	6				128		28	23				2	5
18	16	91	1,861	11	98	3	72	30	4	41	5	20	12	3	13
19	9	50	9	252	210		75	6	5	48	2	27	4	4	6
20	40	46	11	33	4		52	7	9	26	21	48	16	6	11
21		2				8	1	2	1		13	1	3		
22	10	22	13	13			844	29	8	33	50	260	38	28	3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3								445	183						
24			2			1	2		25			5			
25	6	46		1	1	1	67	1	6	679	423	21	18	7	5
26										390					
27	1	2					8	4	48	25	4	643	1,592	15	71
28							1		1				425		
29							4		2		4	2	13	437	
30			2			1	4			1	1	1	8	22	20
31							1			10		13	104		
32	9	19	461	14	264	165	21	12	5	18	9	14	8	2	4
33		47	1,211	15			2	43							
34	36	7	5		3		18	4	1	22	1	33	6	2	21
35	38	241	249	712	4		205	168	31	117		8		2	10
36	23	393	1,535	393	8		800	154	434	287	120	600	1,908	420	265
37	331	63	40	5	27		161	35	8	206	10	306	54	21	196
38	3	11	35	2	2	4	183	1	17	8	21	15	50	14	41
39	103	89	1,232	77	476	242	183	42	40	67	96	126	58	27	62
40	637	733	762	645	1,419	960	1,031	436	415	494	1,144	873	1,120	379	257
41	48	17	19	7			33	7	1	5		28	1	4	
42	217	494	822	134			655	288	236	373	399	787	220	291	128
합	2,913	2,676	8,412	2,325	2,654	1,496	4,914	1,827	1,635	2,607	2,770	4,404	5,796	1,839	1,163
연간노동부임	266.9	439.3	294.9	503.9	432.4	391.6	444.6	479.1	370.9	320	573.1	1,009.1	1,119.9	383	150

	미	국	1939	31	32	33	34	35	36	37	38	39a	39b	40	41	42	Total
1	농	업,	어	7	91	—	—	—	—	453	—	10	4,228	333	311	150	12,472
2	식	품	가	2	—	—	—	—	—	269	1	1	14,180	1,574	37	349	18,793
3	철	금	속	—	592	—	—	69	—	166	1	11	1	—	14	374	3,886
4	철	강	주	1	71	—	—	47	—	8	—	—	—	—	2	121	512
5	조	선	기	—	—	69	—	—	—	4	—	226	16	—	100	17	441
6	농	업	기	—	41	—	—	—	—	70	—	—	17	—	—	75	604
7	엔	진,	터	—	1	2	—	4	—	12	—	7	13	—	—	51	147
8	차	동	차	—	3	72	—	5	33	242	2	75	1,758	—	15	1,145	5,101
9	미	행	기	—	—	28	—	—	—	87	—	134	—	—	—	21	285
10	운	송	실	—	—	4	—	169	—	9	—	6	50	—	13	30	285
11	산	업,	난	—	420	—	—	—	43	167	—	24	290	—	2	1,101	2,575
12	공	작	기	—	—	—	—	9	—	117	—	8	—	—	—	154	484
13	판매	및	서비스	—	—	—	—	—	69	43	53	—	114	—	1	191	475
14	진	기	기	—	306	17	—	9	37	114	9	34	964	—	4	673	2,759
15	철	강	제	11	879	—	—	23	2	71	27	27	84	55	7	494	2,604
16	비	철	금	51	144	—	—	—	—	157	—	13	44	—	322	276	2,959
17	미	금	속	8	1,444	—	—	13	2	65	2	4	235	43	5	123	2,736
18	석	유	제	14	131	319	15	85	670	442	74	97	2,740	—	5	742	8,262
19	석	탄,	코	4	1	4	—	209	—	75	—	7	913	—	—	134	2,365
20	가	스,	전	27	5	33	—	14	19	—	1	116	1,051	96	—	907	2,876
21	통	신	기	2	—	—	—	—	235	—	186	6	547	8	—	500	1,524
22	화	학	학	42	343	—	—	15	—	212	38	26	1,495	—	8	805	5,015

	31	32	33	34	35	36	37	38	39a	39b	40	41	42	Total
23	—	799	—	—	—	—	55	—	2	—	—	—	295	1,844
24	6	58	—	—	—	13	18	107	—	942	—	3	349	1,647
25	23	49	2	—	4	257	43	47	34	184	—	3	427	2,635
26	—	—	—	—	5	—	26	1,251	96	695	9	1	302	2,775
27	18	2	—	—	—	8	109	12	17	1,290	23	8	351	4,419
28	—	—	—	—	—	—	32	1	10	5,288	—	28	—	5,787
29	2	—	—	—	—	—	27	15	4	1,247	—	4	54	1,835
30	2	4	30	—	2	20	41	32	16	333	—	9	352	1,177
31	180	17	—	—	30	55	71	373	12	1,034	29	43	351	2,362
32	12	—	162	—	598	212	—	1,401	4,572	2,784	47	—	—	11,291
33	—	—	—	—	—	—	—	—	—	1,040	—	—	20	2,677
34	7	—	—	—	—	—	101	—	—	90	—	—	—	490
35	—	—	—	—	138	4	—	—	100	689	—	—	473	4,448
36	550	—	—	—	—	897	—	—	—	—	—	—	—	16,873
37	61	—	—	284	—	—	—	—	—	—	—	—	92	3,111
38	14	2	32	29	12	451	2	103	19	14,707	392	—	1,369	18,628
39	99	94	421	—	506	911	345	2,456	433	4,408	93	—	—	15,577
40	753	5,962	1,426	82	2,521	9,342	—	10,209	11,989	6,527	972	—	109	74,002
41	—	—	—	—	—	—	—	—	—	4,152	—	—	—	40,964.3
42	437	—	83	66	137	4,627	—	933	1,000	—	463	—	—	4,152
합	2,335	11,460	2,704	476	4,624	17,907	3,653	17,335	19,136	74,195	4,137	945	12,958	—
연간노동투입	432.1	1,150	778.7	55	1,150.4	5,765.3	—	3,875.9	3,987	631	972.9	—	—	—

〈附表 1-b〉英國 産業年關表, 1935

(백만파운드)

영	국	193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농	업	1.3	—	—	—	—	—	—	—	2.3	—	—	—	—	—
2	석	탄	0.4	5.2	0.8	0.2	3.6	1.3	9.4	1.7	0.3	5.7	0.4	0.1	0.6	0.3
3	기	광	0.2	—	—	4.9	1.5	—	—	—	—	2.9	0.8	—	—	0.1
4	진	자	0.2	—	—	2.8	0.4	0.3	0.4	—	—	1.4	0.4	—	1.0	0.6
5	도	유	0.2	—	—	0.2	1.2	—	0.9	—	0.2	0.5	0.3	—	—	1.2
6	로	코	0.8	—	0.1	0.1	0.1	—	1.2	—	—	7.9	0.1	0.1	0.5	0.1
7	화	학	4.3	1.9	0.5	0.8	1.5	0.1	6.5	1.4	2.2	1.0	0.5	0.5	1.7	1.0
8	비	누, 광	0	—	—	—	—	—	0.3	1.6	0.1	—	—	—	—	—
9	유	류, 도	10.3	—	—	0.1	0.3	—	1.2	4.4	6.3	0.8	—	1.3	0.6	0.5
10	철	강	0.1	1.2	—	0.3	—	—	0.8	—	—	52.2	0.8	3.7	23.3	3.6
11	비	철	—	—	—	—	0.2	—	0.9	0.4	0.4	4.0	5.8	0.7	3.1	5.9
12	조	—	—	—	—	—	—	—	—	—	—	—	—	0.2	—	—
13	기	계	1.5	0.2	—	0.4	—	—	0.1	—	—	0.9	0.2	8.7	16.4	1.4
14	전	기	—	—	—	—	—	—	—	—	—	0.1	0.4	1.9	5.1	13.0
15	자	동	3.2	—	—	—	—	—	—	—	—	—	0.1	—	0.3	0.1
16	비	행	—	—	—	—	—	—	—	—	—	—	—	—	—	—
17	철	도	—	2.3	—	—	—	—	—	—	—	—	0.2	—	—	—
18	금	속	1.7	0.4	—	0.2	0.2	0.1	2.1	0.7	2.3	1.5	0.8	1.1	9.0	4.5
19	면	적	0.1	—	—	0.3	—	—	0.1	—	0.1	—	—	0.2	0.2	0.9
20	모	적	—	—	—	—	—	—	—	—	—	—	—	—	0.5	—
21	양	말, 레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2	2.2	0.1	—	—	—	—	0.5	—	0.3	0.1	—	0.2	0.3	0.2
23	—	—	—	—	—	—	—	—	—	—	—	—	—	—
24	0.1	—	—	—	—	—	0.1	—	—	—	—	—	0.5	—
25	—	—	—	—	—	—	—	—	—	—	—	—	—	—
26	41.6	—	—	—	—	—	0.2	—	0.2	—	—	—	—	—
27	0.7	—	—	—	—	—	1.2	0.1	0.3	—	—	—	—	—
28	1.7	1.3	0.3	0.1	0.3	—	0.5	0.4	0.2	0.7	0.1	1.1	1.5	1.4
29	—	—	—	0.3	0.5	—	1.7	1.5	0.1	—	—	—	0.1	0.7
30	—	—	—	0.1	—	—	4.7	3.9	1.0	0.3	—	—	—	1.5
31	0.6	—	—	—	—	—	—	—	—	—	—	—	0.7	0.9
32	—	—	—	—	—	—	—	—	—	—	—	—	—	—
33	—	—	—	—	—	—	—	—	—	—	—	0.1	—	—
34	0.4	1.3	0.5	1.5	1.2	0.2	3.3	—	0.4	1.5	0.6	0.4	2.0	1.2
35	35.5	3.9	1.0	4.5	1.8	1.3	6.7	2.4	5.3	13.2	4.7	2.1	8.9	5.5
36	0.9	0.6	0.1	0.2	0.1	—	0.2	0.1	0.1	0.4	0.1	0.1	0.5	0.3
37	18.0	3.8	0.4	1.3	1.7	—	9.8	3.9	23.7	10.8	19.6	0.9	5.2	5.1
38	2.1	6.0	1.9	2.5	—	1.7	2.3	—	1.9	16.5	3.8	0.6	0.6	3.3
	128.1	28.2	5.6	24.4	12.3	13.1	48.4	21.3	53.5	122.0	39.7	24.0	82.6	53.3
	172.4	114.8	15.9	37.2	19.5	4.1	42.8	15.3	26.7	69.3	17	22.1	101.8	55.0
	-6.7	3.5	0.4	0.6	0.6	0.1	2.0	2.6	1.6	1.9	0.5	0.4	2.5	1.3
총	293.8	146.5	21.9	62.2	32.4	17.3	93.2	39.2	81.8	193.2	57.2	46.5	186.9	109.6

영 국 1935

기 타 적 물 계 가 의 식 품 가 담 목 제 인 쇄, 출 무 기 건 타 제 조 업 등 기 스, 전 기, 수 도 분 배 서 비 스 기 타 서 비 스 輸 미 배 분 제 화 및 용 역 재 화 및 용 역 제 소 투 및 감 가 상 각 간 점 제

영	국	193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농	업, 임업 등	—	—	—	—	—	1.3	—	0.4	0	5.9	0.2	41.8	6.0
2	석	탄	0.2	—	0.4	0.5	1.7	1.0	0.1	0.4	1.3	0.2	0.1	1.7	0.8
3	기	광업	—	—	—	0.1	—	—	—	—	—	—	—	0.1	—
4	건	자재	0.1	—	—	0.2	—	—	—	—	—	—	—	—	—
5	도	유리	1.3	0.1	0.1	0.3	—	—	—	—	—	—	—	1.6	1.9
6	코	크	0.1	—	0.1	0.3	—	—	—	—	—	—	—	0.3	—
7	화	학 등	0.5	0.1	0.1	1.9	2.0	0.1	0.1	0.3	4.0	1.4	0.5	1.8	1.4
8	비	누, 광택제	—	—	—	—	0.1	0.2	—	—	0.2	0.4	0.3	0.5	—
9	유	류, 도료	3.2	0.1	1.1	1.0	—	—	—	0.1	—	0.4	0.3	6.1	—
10	철	강제	13.4	0.5	3.1	22.0	0.1	—	—	0.1	—	—	—	0.5	—
11	비	철금속	2.8	0.9	1.2	8.4	—	—	—	—	—	0.4	0.3	0.9	0.2
12	조	선	—	—	0	—	—	—	—	—	—	—	—	—	—
13	기	기계	3.7	0.3	3.1	0.5	2.2	1.4	0.1	0.2	0.3	—	—	0.2	0.1
14	진	기	1.8	0.2	0.2	0.1	—	—	—	—	—	—	—	—	—
15	자	동차, 자전거	36.2	—	1.1	0.1	—	—	—	—	—	—	—	—	—
16	비	행기	—	1.1	—	—	—	—	—	—	—	—	—	—	—
17	철	도차	0.4	—	1.3	—	—	—	—	—	—	—	—	—	—
18	금	속제	5.4	0.4	1.6	11.0	—	—	0.3	0.1	—	0.5	1.6	4.3	0.9
19	면	직물, 견직물	0.6	0.1	—	—	63.7	3.2	12.3	3.1	—	0.4	31.1	0.1	—
20	모	직물	0.5	—	0.8	—	0.3	42.1	8.0	1.0	—	0.1	27.1	—	—
21	양	말, 레이스	—	—	—	—	0.1	—	2.6	—	—	—	2.8	—	—
22	기	타	0.9	0.2	0.5	—	0.1	2.4	—	14.5	0.1	—	3.0	1.0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영 국 1935													
23	적 물	—	—	—	23.1	4.8	2.0	1.6	0.5	—	—	—	—
24	가 목, 의	1.5	0.1	—	0.4	2.5	—	0.2	—	8.5	14.0	—	—
25	류 공	—	—	—	—	—	—	—	—	—	12.9	—	—
26	가 담	—	—	—	—	—	—	—	—	—	—	56.6	2.8
27	음 배	—	—	—	—	—	—	—	—	—	—	0.8	50.7
28	목 제	0.6	0.1	1.0	0.2	—	—	0.1	0.2	—	0.4	1.5	2.1
29	지 환	0.2	—	0.1	1.2	0.4	0.6	0.1	0.4	0.1	1.2	5.6	3.5
30	인 섹, 출	1.8	—	1.0	0.1	0.1	0.3	0.3	—	—	1.5	4.6	3.9
31	고 무	6.4	0.1	—	0.3	0.2	—	0.3	—	—	2.1	—	—
32	기 타 제 조	0.2	—	—	0.2	—	—	—	—	0.2	—	—	—
33	건 축 등	—	—	—	—	—	—	—	—	—	—	—	—
34	가스, 전기, 수도	1.3	0.1	0.5	1.9	0.5	0.3	0.4	0.4	0.2	1.1	2.1	0.9
35	분 배 서 비 스	7.5	0.6	2.3	6.3	7.6	1.7	3.2	1.7	2.0	9.2	23.9	10.3
36	기 타 서 비 스	0.4	—	0.1	0.4	0.2	0.1	0.1	0.1	0.1	0.5	0.6	0.5
37	輸 入	3.2	0.3	1.5	37.1	27.6	0.1	10.3	1.3	11.2	10.4	91.2	20.3
38	미배분채화 및 용역	5.0	0.6	—	6.1	3.2	1.1	4.7	2.7	1.0	2.2	17.2	—
	제 화 및 용역 계	99.2	5.9	20.2	101.4	98.8	29.7	41.5	13.2	32.6	122.5	265.0	106.3
	소득 및 감가상각	70.0	8.4	24.4	69.8	42.4	19.2	18.7	18.5	13.9	94.8	119.7	92.9
	간 접 세	2.3	0.1	0.3	2.2	1.0	0.5	0.9	0.4	0.6	5.1	21.3	161.6
	총 계	171.5	14.4	44.9	173.4	211.4	49.4	61.1	32.1	47.1	222.4	406.0	360.8

歷業舊造平 煙減回復

	영	국	1935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Total
1	농	업	등	1.3	0.2	—	—	—	—	—	2.0	0.2	230.7	293.8	842.2
2	석	탄		0.1	1.6	0.1	0.2	0.2	0.5	20.9	18.2	2.0	64.5	146.5	—
3	기	광	업	—	0.4	—	0.1	—	6.0	0.1	—	—	3.2	21.9	—
4	건	축	자	0.2	—	—	—	—	37.7	1.3	—	—	15.2	62.2	153.9
5	도	기,	유	0.1	—	—	—	—	6.9	0.1	1.1	—	13.9	32.4	116.9
6	코	우	크	—	—	0.1	—	—	0.3	0.2	—	—	4.8	17.3	—
7	화	학	스	0.4	1.3	0.1	1.6	0.6	1.9	0.2	—	0.7	48.3	93.2	231.5
8	비	누,	등	—	0.1	—	—	—	0	—	0.2	0.5	34.7	39.2	—
9	유	류,	계	1.0	0.3	2.3	0.1	1.1	7.3	0.2	4.8	0.4	26.2	81.8	—
10	철	도	료	0.2	—	—	0.3	0.6	22.6	4.0	—	—	39.8	193.2	314.6
11	비	강	품	—	—	0.6	—	0.1	4.8	0.1	—	—	15.8	57.2	55.3
12	조	철	속	—	—	—	—	—	0	—	7.0	—	39.3	46.5	85.0
13	기	재	선	—	0.3	0.6	—	—	12.5	3.6	—	—	128.0	186.9	469.0
14	전	기	업	—	—	—	—	—	6.3	10.1	—	—	70.5	109.6	255.4
15	자	동	업	—	—	—	—	0.1	0.4	—	9.4	—	120.5	171.5	301.6
16	비	행	거	—	—	—	—	—	—	—	—	—	13.3	14.4	—
17	철	도	기	—	—	—	—	—	1.2	—	22.3	—	17.2	44.9	83.6
18	금	속	량	3.9	0.2	0.1	0.2	0.8	12.1	0.4	0.1	—	104.9	173.4	290.3
19	변	적	품	1.7	0.1	0.5	3.4	0.9	—	—	5.0	—	83.3	211.4	448.9
20	모	적	물	2.5	—	—	—	0.3	—	—	4.0	—	55.0	142.2	246.6
21	양	말,	물	—	—	—	—	—	—	—	0.2	—	42.7	48.4	118.7
22	기	타	스	1.7	0.7	—	—	0.8	0.9	—	4.0	—	26.4	61.1	87.5

영	구	1935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Total
23	각	물	—	—	—	—	—	—	—	—	—	0.1	32.1	104.1
24	가	죽,	0.6	—	0.1	—	0.1	—	—	0.8	—	17.6	47.1	82.9
25	의	류	—	—	—	—	—	—	—	1.5	0.5	207.5	222.4	632.5
66	식	가	—	—	—	—	—	0.2	—	0.8	—	303.6	406.0	498.1
27	음	담	—	—	—	—	—	—	—	0.3	—	306.7	360.8	165.5
28	목	배	8.9	0.1	—	—	0.6	14.0	0.1	1.5	—	56.5	98.6	250.6
29	제	지	0.3	9.7	18.1	0.1	0.3	1.3	—	5.5	—	20.6	74.8	71.6
30	인	쇄,	0.4	0.6	7.0	0.3	0.2	—	0.9	23.0	12.0	70.2	145.7	371.7
31	고	출	—	—	—	0.2	0.2	0.2	—	—	—	15.9	28.4	—
32	기	타	0.1	—	0.1	—	0.4	0.6	0.2	—	1.8	20.4	24.2	154.5
33	전	축	—	—	—	—	—	22.9	—	31.1	95.0	321.5	470.6	1,044.7
34	가	스,	0.7	0.6	0.9	0.5	0.1	1.0	35.4	15.8	2.5	159.5	242.5	262.5
35	분	배	5.6	4.3	5.9	1.2	1.5	22.4	12.8	115.0	46.0	1,298.4	1,700.6	2,313.6
36	기	타	0.2	0.2	0.5	0.1	0.1	10.0	1.8	15.0	8.0	1,305.5	1,348.5	—
37	輸	入	19.5	16.1	4.5	5.4	1.9	18.5	0.7	10.8	7.7	352.6	802.2	—
38	미	배	2.7	3.3	0.6	0.8	1.4	0.2	—	20.0	10.0	132.4	—	—
	제	화	52.1	40.1	42.1	14.5	12.3	212.7	93.0	325.4	187.3	5,664.8	8,385.9	—
	소	득	43.9	33.3	101.6	13.6	11.7	252.6	148.6	1,271.6	1,008.8	—17.9	4,225.2	—
	간	접	2.6	1.4	2.0	0.3	0.2	5.3	0.9	103.6	152.4	106.8	587.3	—
	총	계	98.6	74.8	145.7	28.4	24.2	470.6	242.5	1,700.6	1,348.5	5,753.7	13,198.4	—

〈附表 2〉 産業 再分類 方式 24個 部門

	영 국 (1935)	미 국 (1939)
1. 농림업, 수산업 2. 석탄, 코우크스 3. 광업, 비금속 4. 화학, 석유 5. 철강제품 6. 비철금속 7. 조선 8. 기계 9. 전기기계 10. 자동차 11. 항공 12. 철도 13. 방직, 방적 14. 의류 15. 가죽, 피혁 16. 식품가공 17. 목재 18. 제지 19. 인쇄, 출판 20. 고무 21. 기타공업 22. 건축 23. 가스, 수도, 전기 24. 서비스 25. 무역 26. 미배분재화	1. 농업, 임업 등 2. 석탄, 코우크스 3. 기타 광업 4. 건축자재 5. 도기, 유리 7. 화학 등 8. 비누, 평택제 9. 유류, 도료 10. 철강제품 18. 금속 제품 11. 비철금속 12. 조선 13. 기계공업 14. 전기공업 15. 자동차, 차전기 16. 비행기 17. 철도차량 19. 목직물, 전직물 20. 모직물 21. 양말, 레이스 22. 기타 직물 23. 직물제품 25. 의류 24. 가죽, 모피 26. 식품 가공 27. 음료, 담배 28. 목재 29. 제지 30. 인쇄, 출판 31. 고무 32. 기타공업 33. 건축 등 34. 가스, 전기, 수도 35. 분배 서비스 36. 기타 서비스 37. 수입 38. 미배분재화	1. 농업, 어업 19. 석탄, 코우크스 3. 철금속 17. 비금속 광물 18. 석유 제품, 경유 22. 화학 4. 철강구조 15. 철강제품 16. 비철금속 5. 조선 6. 농기계 7. 엔진, 터빈 11. 산업, 난방설비 12. 동작기계 13. 판매 및 서비스 기계 14. 전기기구 8. 자동차 9. 비행기 10. 운송설비 27. 직물제품 28. 의류 29. 가죽 2. 식품가공 23. 목재 24. 가구 25. 펄프제지 26. 인쇄출판 30. 고무 31. 기타 제조업 32. 건축 20. 가스, 전기 33. 기타 운송 34. 해양 운송 35. 증기철도 운송 36. 도소매업 38. 기업 및 개인 서비스 40. 음식점 21. 통신 37. 해외무역 42. 미배분

〈附表 3-a〉再分類에 의한 産業聯關表 24個 部門, 美國 1939年 (백만달라, 천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948	—	0	175	0	0	0	0	0	—	—	—	480	103	—
2	2	252	252	84	21	9	1	16	7	12	—	1	27	4	4
3	38	0	1,498	134	700	49	37	195	80	434	0	26	0	0	2
4	760	24	243	2,790	55	26	10	30	53	52	18	6	280	50	31
5	21	1	11	82	41	2	32	175	71	334	4	29	1	6	5
6	5	1	111	95	54	1,323	21	49	98	85	21	5	1	0	0
7	7	0	0	0	0	0	1	0	0	0	0	0	0	0	0
8	431	9	49	101	20	12	28	134	21	55	6	13	66	29	12
9	0	0	2	0	2	0	3	0	330	81	1	0	0	0	0
10	158	—	0	0	0	0	0	0	0	1,589	—	—	—	—	—
11	—	—	0	0	0	0	0	0	0	—	15	—	—	—	—
12	4	—	0	0	0	0	0	0	0	—	—	—	—	—	—
13	51	—	2	8	2	1	4	4	2	61	—	—	643	1,592	15
14	—	—	0	1	0	0	0	0	0	1	—	—	—	425	—
15	14	—	0	4	0	0	0	2	0	4	—	—	2	13	437
16	643	0	0	47	0	0	0	0	0	0	0	0	25	0	131
17	93	0	0	4	6	0	2	10	26	18	0	5	5	0	5

	산 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계	2	1	48	67	9	6	0	9	13	1	—	—	21	18	7
19	인쇄, 출판	—	—	0	0	0	0	0	0	0	—	—	—	—	—	—
20	고	54	—	0	6	0	0	1	26	3	182	1	6	1	8	22
21	기타공업	2	—	0	1	0	0	12	8	6	8	2	—	13	104	—
22	건축	295	14	62	482	13	9	5	20	7	14	7	1	14	8	2
23	가스, 수도, 전기	64	33	88	63	29	40	3	38	15	18	1	1	48	16	6
24	서비스	2,791	1,122	1,059	4,244	406	100	3	716	647	1,116	6	19	657	1,967	438
25	해외무역	337	5	85	201	8	331	0	12	5	2	—	1	306	54	21
26	a. 경부	355	77	189	1,415	104	103	9	142	114	230	18	10	126	58	27
	b. 가계	5,081	645	1,607	1,793	969	637	230	1,498	775	969	138	83	873	1,120	379
27	고	—	7	46	52	5	48	0	14	24	—	—	—	28	1	4
28	미배분재화	158	134	1,132	1,477	629	217	53	1,162	430	—	54	69	787	229	291
	합계	12,314	2,325	6,484	13,326	3,074	2,913	455	4,260	2,727	5,266	292	275	4,404	5,796	1,839
	노동부업	10,739	503.9	921.9	739.5	599.6	266.9	126	776.9	424.8	466	66.7	47.9	1,009.1	1,119.9	383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a	26. b	27	28	Total
1	4,998	100	85	0	—	7	91	0	333	453	10	4,228	311	150	12,472
2	49	11	48	2	6	4	1	210	213	75	7	913	0	134	2,365
3	137	92	23	0	5	8	2,036	0	130	231	15	236	19	497	6,622
4	186	71	74	55	44	56	474	98	1,219	654	123	4,235	13	1,547	13,277
5	305	63	0	0	0	12	950	3	154	79	27	84	9	615	3,116
6	23	0	0	5	0	51	144	49	6	157	13	44	322	276	2,959
7	1	0	0	0	0	0	0	0	69	4	226	16	100	17	441
8	70	13	32	52	17	0	462	16	180	409	39	434	3	1,572	4,285
9	0	0	0	0	0	0	306	69	176	114	34	964	4	673	2,759
10	2	0	0	0	—	—	3	1	113	242	75	1,758	15	1,145	5,101
11	0	0	0	0	—	—	—	0	28	87	134	0	0	21	285
12	0	0	0	0	—	—	—	0	173	9	6	50	13	30	285
13	43	52	25	4	71	18	2	0	44	109	17	1,290	8	351	4,419
14	0	1	0	0	—	—	—	0	1	32	10	5,288	28	0	5,787
15	0	2	0	4	—	2	—	0	15	27	4	1,247	4	54	1,835
16	1,527	0	7	0	0	2	0	0	1,575	269	1,14	180	37	349	18,793
17	16	653	0	0	0	6	857	0	121	73	2	942	3	644	3,49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a	26. b	27	28	Total
18	244	7	679	423	5	23	49	1	311	43	34	184	3	427	2,635
19	0	0	0	390	—	—	—	0	1,265	26	96	695	1	302	2,775
20	3	0	1	1	20	2	4	0	85	41	16	333	9	352	1,177
21	0	0	10	0	—	180	17	0	487	71	12	1,034	43	351	2,362
22	73	17	18	9	4	12	—	264	2,585	0	4,572	2,784	0	0	11,291
23	66	16	26	21	11	27	5	4	163	0	116	1,051	0	907	2,876
24	4,812	856	434	155	337	573	3	17	2,499	103	125	21,225	0	2,362	48,792
25	824	43	206	10	196	61	—	27	284	0	0	0	0	92	3,111
26	1,828	82	67	96	62	99	94	476	4,629	345	433	4,408	0	—	15,577
a. 總計	2,143	851	494	1,144	257	753	5,962	1,419	25,512	0	11,989	6,572	0	109	74,002
27	24	8	5	0	—	2	—	0	0	0	0	0	0	0	268
28	1,333	524	373	399	128	437	—	0	6,309	0	1,000	0	0	0	17,316
合計	18,707	3,462	2,607	2,770	1,163	2,335	11,460	2,654	48,679	3,653	12,136	74,195	945	12,958	270,474
附 錄	1,257.8	850	320	573.1	150	432.1	1,150	432.4	12,990	0	3,987	631	0	0	—

〈附表 3-b〉再分類에 의한 産業聯關表 24個 部門, 英國, 1935年 (백만파운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3	0	0.2	2.3	0	-	-	-	-	-	-	-	1.7
2	1.2	14.6	6.0	3.7	14.0	0.5	0.2	1.1	0.4	0.3	-	0	4.5
3	0.6	0.3	11.0	3.3	5.4	1.5	0	1.0	1.9	1.4	0.1	0.1	0
4	14.6	2.0	3.2	24.0	4.7	0.5	1.8	2.3	1.5	3.7	0.2	1.2	7.1
5	1.8	1.7	0.7	5.9	86.7	1.6	4.8	32.3	8.1	18.8	0.9	4.7	0.6
6	-	0	0.2	1.7	12.4	5.8	0.7	3.1	5.9	2.8	0.9	1.2	0
7	-	0	0	0	0	-	0.2	-	-	-	-	0	0
8	1.5	0.2	0.4	0.1	1.4	0.2	8.7	16.4	1.4	3.7	0.3	3.1	4.2
9	-	0	0	0	0.2	0.4	1.9	5.1	13.0	1.8	0.2	0.2	0
10	3.2	0	0	0	0.1	0.1	-	0.3	0.1	36.2	-	1.1	0
11	-	0	0	0	0	-	-	-	-	-	1.1	-	0
12	-	2.3	0	0	0	0.2	-	-	-	0.4	-	1.3	0
13	2.3	0.1	0.3	1.0	0.1	0	0.4	1.0	1.1	2.0	0.3	1.3	185.5
14	-	0	0	0	0	-	-	-	-	-	-	-	0
15	0.1	0	0	0.1	0	-	-	0.5	-	1.5	0.1	-	3.1
16	42.3	0	0	2.0	0	0	0	0	0	0	0	0	0
17	1.7	1.3	0.7	1.1	1.8	0.1	1.1	1.5	1.4	0.6	0.1	1.0	0.5
18	-	0	0.8	3.3	0.6	-	-	0.1	0.7	0.2	-	0.1	2.7
19	-	0	0.1	9.6	1.3	-	-	-	1.5	1.8	-	-	0.8
20	0.6	0	0	0	0.3	-	-	0.7	0.9	6.4	0.1	-	0.8
21	-	0	0	0	0.2	-	-	-	-	0.2	-	-	0
22	-	0	0	0	0	-	0.1	-	-	-	-	-	0
23	0.4	1.5	3.2	3.7	3.4	0.6	0.4	2.0	1.2	1.3	0.1	0.5	2.9
24	36.4	5.8	7.7	14.8	20.3	4.8	2.2	9.4	5.8	7.9	0.6	2.4	29.4
25	18.0	3.8	3.4	42.4	47.9	19.6	0.9	5.2	5.1	3.2	0.3	1.5	80.1
26	2.1	7.7	4.4	4.2	22.6	3.8	0.6	0.6	3.3	5.0	0.6	-	15.7
	128.1	41.3	42.3	123.2	223.4	39.7	24.0	82.6	53.3	99.2	5.9	20.2	339.6
	293.8	163.8	116.5	214.2	366.6	57.2	46.5	186.9	109.6	171.5	14.4	44.9	496.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0.2	5.9	47.8	1.3	0.2	—	—	—	—	—	—	2.2	230.7
2	0.1	0.2	2.8	0.1	1.6	0.2	0.2	0.2	0.8	21.1	20.2	20.2	69.3
3	0	0	3.6	0.3	0.4	0	0.1	0	50.6	1.5	1.1	32.3	116.5
4	1.1	2.2	9.8	1.4	1.7	2.4	1.7	1.7	9.2	0.4	6.6	109.2	214.2
5	1.6	0.5	5.7	4.1	0.2	0.1	0.5	1.4	34.7	4.4	0.1	144.7	366.6
6	—	—	1.1	—	—	0.6	—	0.1	4.8	0.1	0	15.8	57.2
7	—	—	0	—	—	—	—	—	0	—	7.0	39.3	46.5
8	—	—	0.3	—	0.3	0.6	—	—	12.5	3.6	0	128.0	186.9
9	—	—	0	—	—	—	—	—	6.3	10.0	0	70.5	109.6
10	—	—	0	—	—	—	—	0.1	0.4	—	9.4	120.5	171.5
11	—	—	0	—	—	—	—	—	—	—	0	13.3	14.4
12	—	—	0	—	—	—	—	—	1.2	—	22.3	17.2	44.9
13	64.0	0.5	1.1	5.9	0.8	0.5	3.4	2.0	0.9	0	13.2	207.5	495.2
14	12.9	—	0	—	—	—	—	—	—	—	2.0	207.5	222.4
15	14.0	8.5	0	0.6	—	0.1	—	0.1	—	—	0.8	17.6	47.1
16	0	0	110.9	0	0	0	0	0	0.2	0	1.1	610.3	766.8
17	0.4	—	3.6	8.9	0.1	—	—	0.6	14.0	0.1	1.5	56.5	98.6
18	1.2	0.1	9.1	0.3	9.7	18.1	0.1	0.3	1.3	—	5.5	20.6	74.8
19	1.5	—	8.5	0.4	0.6	7.0	0.3	0.2	—	0.9	41.0	70.2	145.7
20	2.1	—	0	—	—	—	0.2	0.2	0.2	—	0	15.9	28.4
21	—	0.2	0	0.1	—	0.1	—	0.4	0.6	0.2	1.8	20.4	24.2
22	—	—	0	—	—	—	—	—	22.9	—	126.1	321.5	470.6
23	1.1	0.2	3.0	0.7	0.6	0.9	0.5	0.1	1.0	35.4	18.3	159.5	242.5
24	9.7	2.1	35.3	5.8	4.5	6.4	1.3	1.6	32.4	14.6	184.0	2,603.9	3,049.1
25	10.4	11.2	111.5	19.5	16.1	4.5	5.4	1.9	18.5	0.7	18.5	352.6	802.2
26	2.2	1.0	17.2	2.7	3.3	0.6	0.8	1.4	0.2	—	30.0	10.0	132.4
	122.5	32.6	371.3	52.1	40.1	42.1	14.5	12.3	212.7	93.0	512.7	—	—
	222.4	47.1	766.8	98.6	74.8	145.7	28.4	24.2	470.6	242.5	3,049.1	—	—

山 業

농림업, 수산업, 수공업, 석유, 화학, 철강, 비철, 조기기, 전자, 항공, 방직, 의류, 가죽, 식품, 목재, 인쇄, 코끼리, 전기, 가스, 수도, 비, 무, 미배, 가합

〈附表 4-a〉 레온타에프 逆行列, 美國 (I-A)⁻¹

	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농림업, 수산업	1.1119	0.0128	0.0080	0.0307	0.0061	0.0028	0.0046	0.0055	0.0085	0.0130	0.0035	0.0054
2	석탄, 코우크스	0.0059	1.1279	0.0621	0.0152	0.0249	0.0117	0.0121	0.0112	0.0102	0.0180	0.0035	0.0151
3	광업, 비금속	0.0302	0.0173	1.3157	0.0444	0.3112	0.0465	0.1422	0.0828	0.0656	0.1985	0.0207	0.1674
4	화학, 석유	0.1071	0.0414	0.0786	1.2922	0.0501	0.0293	0.0461	0.0256	0.0485	0.0549	0.0915	0.0491
5	철강	0.0134	0.0080	0.0080	0.0179	1.0183	0.0038	0.0778	0.0465	0.0353	0.0998	0.0200	0.1126
6	비철	0.0076	0.0052	0.0451	0.0223	0.0451	1.8358	0.0966	0.0277	0.0807	0.0568	0.1438	0.0451
7	조선	0.0011	0.0009	0.0004	0.0007	0.0003	0.0001	1.0023	0.0003	0.0005	0.0006	0.0001	0.0002
8	기계	0.0463	0.0107	0.0150	0.0178	0.0127	0.0100	0.0682	1.0364	0.0140	0.0241	0.0262	0.0539
9	전기	0.0037	0.0045	0.0034	0.0046	0.0031	0.0017	0.0091	0.0020	1.1403	0.0285	0.0057	0.0017
10	자동차	0.0217	0.0023	0.0012	0.0022	0.0009	0.0004	0.0004	0.0009	0.0013	1.4339	0.0003	0.0007
11	항공	0.0002	0.0004	0.0002	0.0003	0.0001	0.0001	0.0001	0.0001	0.0002	0.0003	1.0542	0.0001
12	철도	0.0016	0.0022	0.0011	0.0017	0.0009	0.0003	0.0003	0.0008	0.0012	0.0016	0.0003	1.0006
13	방직, 방	0.0074	0.0013	0.0014	0.0024	0.0016	0.0011	0.0114	0.0023	0.0023	0.0245	0.0008	0.0027
14	의류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3	0.0000	0.0000
15	가죽, 피혁	0.0019	0.0003	0.0002	0.0008	0.0002	0.0001	0.0002	0.0008	0.0002	0.0017	0.0001	0.0002
16	가죽, 가죽	0.0765	0.0225	0.0115	0.0238	0.0090	0.0037	0.0040	0.0087	0.0129	0.0170	0.0034	0.0066
17	식품	0.0167	0.0062	0.0044	0.0094	0.0056	0.0018	0.0084	0.0059	0.0171	0.0115	0.0037	0.0252
18	제조	0.0087	0.0111	0.0190	0.0176	0.0116	0.0075	0.0048	0.0081	0.0144	0.0113	0.0030	0.0058
19	인쇄	0.0108	0.0185	0.0092	0.0145	0.0072	0.0029	0.0030	0.0070	0.0104	0.0135	0.0024	0.0052
20	고철	0.0068	0.0014	0.0008	0.0019	0.0006	0.0003	0.0030	0.0070	0.0021	0.0516	0.0041	0.0229
21	기타	0.0044	0.0068	0.0035	0.00056	0.0031	0.0011	0.0300	0.0047	0.0066	0.0076	0.0089	0.0021
22	건설	0.0517	0.0436	0.0347	0.0751	0.0241	0.0153	0.0220	0.0208	0.0258	0.0344	0.0347	0.0185
23	가스, 수도, 전기	0.0095	0.0194	0.0215	0.0099	0.0163	0.0268	0.0127	0.0127	0.0108	0.0130	0.0073	0.0097
24	서비스	0.3583	0.6121	0.3027	0.4803	0.2389	0.0975	0.0979	0.2314	0.3447	0.4453	0.0802	0.1724
	합계	1.9037	1.9768	1.9476	2.0912	1.7919	2.1007	1.6570	1.5493	1.8538	2.5616	1.5186	1.7233

	산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농림업, 수산업	0.1511	0.0753	0.0412	0.3317	0.0508	0.0592	0.0133	0.0178	0.0131	0.0166	0.0043	0.0225
2	석탄, 코우크로스	0.0131	0.0087	0.0082	0.0093	0.0111	0.0333	0.0089	0.0113	0.0071	0.0158	0.0922	0.0082
3	광업, 비금속	0.0153	0.0167	0.0173	0.0347	0.0627	0.0297	0.0113	0.0187	0.0184	0.2722	0.0338	0.0256
4	화학, 석유	0.1208	0.0686	0.0526	0.0617	0.0577	0.0707	0.0472	0.0728	0.0507	0.0799	0.0614	0.0457
5	철강	0.0070	0.0086	0.0110	0.0263	0.0286	0.0062	0.0038	0.0058	0.0103	0.0918	0.0130	0.0116
6	비철금속	0.0056	0.0053	0.0039	0.0082	0.0057	0.0048	0.0067	0.0040	0.0468	0.0396	0.0415	0.0055
7	제조	0.0005	0.0008	0.0006	0.0009	0.0006	0.0005	0.0002	0.0005	0.0005	0.0002	0.0001	0.0016
8	기계	0.0279	0.0189	0.0154	0.0218	0.0117	0.0237	0.0283	0.0213	0.0047	0.0481	0.0132	0.0100
9	기계	0.0027	0.0036	0.0029	0.0035	0.0030	0.0029	0.0015	0.0029	0.0027	0.0319	0.0335	0.0068
10	자동차	0.0038	0.0031	0.0022	0.0077	0.0023	0.0022	0.0008	0.0016	0.0013	0.0012	0.0010	0.0041
11	항공	0.0002	0.0003	0.0003	0.0003	0.0002	0.0002	0.0001	0.0002	0.0002	0.0001	0.0001	0.0007
12	철도	0.0011	0.0019	0.0015	0.0017	0.0014	0.0011	0.0005	0.0013	0.0012	0.0005	0.0004	0.0040
13	방직	1.1728	0.3491	0.0152	0.0061	0.0230	0.0164	0.0052	0.0738	0.0109	0.0028	0.0006	0.0023
14	의약품	0.0000	1.0791	0.0000	0.0000	0.0004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5	가죽	0.0011	0.0038	1.3120	0.0008	0.0012	0.0003	0.0023	0.0003	0.0014	0.0002	0.0001	0.0006
16	의식품	0.0268	0.0253	0.1192	1.1236	0.0172	0.0189	0.0071	0.0151	0.0137	0.0065	0.0041	0.0408
17	목재	0.0069	0.0064	0.0090	0.0066	1.2374	0.0048	0.0023	0.0043	0.0072	0.0951	0.0109	0.0098
18	인쇄	0.0139	0.0164	0.0162	0.0278	0.0111	1.3586	0.2434	0.0133	0.0206	0.0126	0.0040	0.0186
19	인쇄, 출판	0.0089	0.0156	0.0126	0.0132	0.0118	0.0096	1.1684	0.0114	0.0099	0.0045	0.0031	0.0337
20	고고	0.0019	0.0033	0.0172	0.0030	0.0012	0.0017	0.0011	0.0185	0.0018	0.0011	0.0004	0.0025
21	건축	0.0072	0.0279	0.0048	0.0051	0.0045	0.0093	0.0027	0.0045	1.0873	0.0035	0.0014	0.0124
22	건설	0.0297	0.0363	0.0284	0.0397	0.0323	0.0328	0.0171	0.0287	0.0274	1.0161	0.1090	0.0629
23	가스, 수도, 전기	0.0164	0.0107	0.0079	0.0093	0.0097	0.0170	0.0129	0.0133	0.0157	0.0081	1.0051	0.0057
24	서비스	0.2930	0.5174	0.4170	0.4375	0.3911	0.3176	0.1486	0.3758	0.3257	0.1478	0.1009	1.1133
	합계	1.9276	2.3033	2.1166	2.1833	1.9768	2.0216	1.7340	1.7171	1.6784	1.8963	1.5339	1.4489

〈附表 4-b〉 레온티에프 逆行列, 英國 (J-A)⁻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0163	0. 0004	0. 0026	0. 0136	0. 0005	0. 0004	0. 0013	0. 0011	0. 0008	0. 0026	0. 0019	0. 0013
2	0. 0096	1. 1011	0. 0686	0. 0298	0. 0601	0. 0175	0. 0191	0. 0223	0. 0157	0. 0166	0. 0090	0. 0253
3	0. 0058	0. 0034	1. 1063	0. 0215	0. 0242	0. 0344	0. 0084	0. 0134	0. 0272	0. 0178	0. 0138	0. 0089
4	0. 0619	0. 0166	0. 0367	1. 1316	0. 0223	0. 0141	0. 0529	0. 0221	0. 0238	0. 0415	0. 0228	0. 0388
5	0. 0177	0. 0199	0. 0147	0. 0447	1. 3169	0. 0464	0. 1949	0. 2569	0. 1207	0. 1976	0. 1024	0. 1712
6	0. 0021	0. 0016	0. 0034	0. 0122	0. 0502	1. 1158	0. 0319	0. 0325	0. 0735	0. 0328	0. 0811	0. 0402
7	0. 0004	0. 0001	0. 0002	0. 0002	0. 0002	0. 0003	1. 0045	0. 0002	0. 0002	0. 0002	0. 0002	0. 0002
8	0. 0069	0. 0032	0. 0054	0. 0022	0. 0066	0. 0057	0. 2086	1. 0988	0. 0178	0. 0325	0. 0267	0. 0809
9	0. 0008	0. 0009	0. 0021	0. 0015	0. 0023	0. 0100	0. 0544	0. 0355	1. 1368	0. 0174	0. 0193	0. 0095
10	0. 0147	0. 0007	0. 0005	0. 0007	0. 0010	0. 0031	0. 0010	0. 0028	0. 0020	1. 2683	0. 0006	0. 0327
11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1. 0827	0. 0000
12	0. 0014	0. 0163	0. 0017	0. 0012	0. 0018	0. 0051	0. 0011	0. 0011	0. 0012	0. 0041	0. 0010	1. 0311
13	0. 0166	0. 0034	0. 0068	0. 0112	0. 0030	0. 0020	0. 0211	0. 0133	0. 0234	0. 0362	0. 0402	0. 0534
14	0. 0001	0. 0000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0. 0001
15	0. 0009	0. 0002	0. 0002	0. 0009	0. 0002	0. 0001	0. 0012	0. 0039	0. 0005	0. 0141	0. 0097	0. 0013
16	0. 1718	0. 0003	0. 0009	0. 0147	0. 0004	0. 0003	0. 0008	0. 0005	0. 0004	0. 0009	0. 0006	0. 0007
17	0. 0084	0. 0104	0. 0086	0. 0076	0. 0084	0. 0034	0. 0307	0. 0123	0. 0176	0. 0075	0. 0100	0. 0280
18	0. 0051	0. 0008	0. 0103	0. 0287	0. 0044	0. 0014	0. 0032	0. 0029	0. 0125	0. 0065	0. 0018	0. 0052
19	0. 0075	0. 0017	0. 0044	0. 0555	0. 0075	0. 0027	0. 0056	0. 0040	0. 0196	0. 0190	0. 0031	0. 0046
20	0. 0027	0. 0001	0. 0001	0. 0001	0. 0012	0. 0003	0. 0015	0. 0048	0. 0097	0. 0482	0. 0080	0. 0018
21	0. 0002	0. 0001	0. 0001	0. 0002	0. 0008	0. 0001	0. 0002	0. 0003	0. 0002	0. 0018	0. 0002	0. 0002
22	0. 0067	0. 0021	0. 0039	0. 0043	0. 0040	0. 0048	0. 0052	0. 0038	0. 0039	0. 0041	0. 0032	0. 0040
23	0. 0059	0. 0132	0. 0383	0. 0262	0. 0178	0. 0170	0. 0187	0. 0196	0. 0200	0. 0183	0. 0137	0. 0200
24	0. 1535	0. 0475	0. 0898	0. 1000	0. 0913	0. 1099	0. 0902	0. 0866	0. 0896	0. 0937	0. 0726	0. 0909
	1. 5169	1. 2439	1. 4057	1. 5079	1. 6252	1. 3948	1. 7575	1. 6384	1. 6171	1. 8820	1. 5245	1. 6504

합 계

참 고 문 헌

- 姜光夏(1991) : 『산업연관분석론』 진정판, 비봉출판사.
- 김두얼(1994) : “전간기 미국의 관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 朴武成(1979) : 『뉴딜연구—1930년대의 미국정치경제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 梁東休(1992) :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 테민논쟁을 중심으로,” 『美國學』 15,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李憲大(1992) : “바이마르共和國 末期 브뤼닝政權의 經濟政策—보르하르트論爭에 관한 小考,” 『經濟史學』 16.
- 車明洙(1992) : “대공황기 미국의 실업과 임금,” 『美國學』 15.
- 한국은행(1987) : 『산업연관분석해설—원리와 이용』, 한국은행
- 西川俊作·腰原久雄(1981) : “1935年の投入産出表—その推計と含意,” 中村隆英編, 『戰間期日本經濟分析』, 東京, 山川出版社.
- Aldcroft, D.H. (1986): *The British Economy Vol. 1 The Years of Turmoil 1920~1951*,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 Alford, B.W.E. (1972): *Depression and Recovery? British Economic Growth, 1918~1939*, London, Macmillan.
- Anderson, G.M., and R.D. Tollison (1991): “Congressional Influence and Patterns of New Deal Spending, 1933~39,”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4, April.
- Bailey, M.J. (1971): *National Income and the Price Level: A Study in Macroeconom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Barna, T. (1952): “The Interdependence of the British Economy,”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65.
- Beenstock, M., F. Capie and B. Griffiths (1984): “Economic Recovery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1930s,” Bank of England Panel Paper, No. 23, April.
- Bernstein, M.A. (1987): *The Great Depression: Delayed Recovery and Economic Change in America, 1929~1939*,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Brown, E.C. (1956): “Fiscal Policy in the thirties: A Reappraisal,” *American Economic Review*, 46.
- Buxton, N.K. (1975): “The Role of the ‘New Industries’ in Britain during the 1930s: A Reinterpretation,” *Business History Review*, 49.
- Capie, F. (1978): “The British Tariff and Industrial Protection in the 1930s,” *Economic History Review*, 31, August.

- Chandler, L.V. (1970): *America's Greatest Depression, 1929~41*, New York, Harper & Row.
- Chapman, A.L. (1953): *Wages and Salaries in the United Kingdom, 1920~1938*,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rafts, N.F.R. (1989): "Long-term Unemployment and the Wage Equation in Britain, 1925~1939," *Economica*, 56.
- Dimsdale, N.H. (1984): "Employment and Real Wages in the Interwar Period,"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10, November.
- Eichengreen, B.J. (1986): "The Bank of France and the Sterilization of Gold, 1926~32,"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3, January.
- _____ (1987): "Unemployment in Interwar Britain: dole or doldrums?" *Oxford Economic Papers*, 39.
- _____ (1992a): "The Origins and Nature of the Great Slump Revisited," *Economic History Review*, 45, May.
- _____ (1992b): *Golden Fetters: The Gold Standard and the Great Depression, 1919~1939*, New York, Oxford Univ. Press.
- Eichengreen, B.J., and T. Hatton (eds.) (1988): *Interwar Unemploy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Boston, Martinus Nijhoff.
- Fearon, P. (1987): *War, Prosperity and Depression: The U.S. Economy, 1917~45*, Lawrence, Univ. of Kansas Press.
- Feinstein, C.H. (1965): *Domestic Capital Formation in the United Kingdom, 1920~1938*,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72):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Output of the United Kingdom, 1855~1965*,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einstein, C.H. (ed.) (1983): *The Managed Economy: Essays in British Economic Policy and Performance since 1929*, Oxford, Oxford Univ. Press.
- Friedman, M., and A.J. Schwartz (1963):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Garside, W.R. (1990): *British Unemployment 1919~1939: A Study in Public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lynn, S., and A. Booth (1983): "Unemployment in Interwar Britain: a Case for Re-learning the Lessons of the 1930s," *Economic History Review*, 36, August.
- Gregg, P.A., and G.D.N. Worswick (1988): "Recession and Recovery in Britain, The 1930s and the 1980s,"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vember.
- Hannah, L. (1983): *The Rise of the Corporate Economy*, 2nd ed., London, Methuen.
- Hayford, M., and C. Pasurka, Jr. (1991):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and the Fordney-McCumber and Smoot-Hawley Tariff Acts," *Applied Economics*, 23.
- Howson, S. (1980): "The Management of Sterling, 1832~1939,"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0, March.

- Jones, M.E.F. (1985): "Regional Employment Multipliers, Regional Policy, and Structural Change in Interwar Britai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2, October.
- Kindleberger, C.P. (1978):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6):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2nd e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Kitson, M., and S. Solomou(1991): *Protectionism and Economic Revival: the British Interwar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Kitson, M., S. Solomou, and M. Weale (1991): "Effective Protection and Economic Recovery in the United Kingdom during the 1930s," *Economic History Review*, 44, May.
- Leontief, W.W. (1951):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 2nd ed., Oxford, Oxford Univ. Press.
- _____ (1986): *Input Output Economics*, 2nd ed., Oxford, Oxford Univ. Press.
- Margo, Robert A. (1993):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the 1930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 2.
- Meltzer, A.H.(1976): "Monetary and Other Explanations of the State of the Great Depress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 September.
- Middleton, R. (1981): "The Constant Employment Budget Balance and British Budgetary Policy, 1929~39," *Economic History Review*, 34, May.
- Minsky, H. (1982): "The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Capitalist Processes and the Behavior of the Economy," in C.P. Kindleberger and J.P. Laffargue (eds.), *Financial Crises: Theory, History and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Mishkin, F.(1981): "The Real Interest Rate: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K. Brunner and A. Meltzer (eds.),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Inflation*,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15.
- Mitchell, B.(1978): *European Historical Statistics, 1750~1970*.
- O'Brien, P. (1987): "Britain's Economy Between the Wars: A Survey of a Counter-Revolution in Economic History," *Past and Present*, 115, May.
- Peppers, L.C. (1973): "Full-Employment Surplus Analysis: The 1930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0.
- Renaghan, T.M. (1988): "A New Look at Fiscal Policy in the 1930s,"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11.
- Richardson, H.W. (1962): "The Basis of Economic Recovery in the Nineteen-thirties: A Review and a New Interpretation," *Economic History Review*, 15, May.
- _____ (1967): *Economic Recovery in Britain, 1929~39*,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Richardson, H.W., and D.H. Aldcroft (1968): *Building and the Economy between the Wars*, London, Allen and Unwin.
- Romer, C.D. (1992): "What Ended the Great Depress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2,

December.

- Saint-Etienne, Christian (1984): *The Great Depression, 1929~1938: Lessons for the 1980s*, Stanford, Hoover Institute Press.
- Sargent, T. (1983): "End of Four Big Inflations," in R.E. Hall (ed.), *Inflation: Causes and Effects*, Chicago, Chicago Univ. Press.
- Smiley, G. (1983): "Recent Unemployment Rate Estimates for the 1920s and 1930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3, June.
- Temin, P. (1989):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Cambridge, MIT Press.
- Temin, P., and B. Wigmore (1990): "End of One Big Defl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7, September.
- Thomas, M. (1983): "Rearmament and Economic Recovery in the late 1930s," *Economic History Review*, 36.
- U.K. Department of Employment (1971): *British Labour Statistics: Historical Abstract*.
- U.K. Ministry of Labour, *Gazette*, 1925~39.
- U.S. Bureau of the Census, *15th Census* (1930).
- U.S. Bureau of the Census, *16th Census* (1940).
-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5):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 von Tunzelman, G.N. (1982): "Structural Change and Leading Sectors in British Manufacturing, 1907~68," in C.P. Kindleberger and G. di Tella (eds.), *Economics in the Long View*, vol. III, London, Macmillan.
- Wallis, J.J. (1985): "Why 1933?: The Origins and Timing of National Government Growth, 1933~1940,"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sup. 4.
- Weinstein, M.M. (1980): *Recovery and Redistribution under the NIRA*, Amsterdam, North Holland.
- Whatley, W.C. (1983): "Labor for the Picking: The New Deal in the South,"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3, December.
- Winch, D. (1969): *Economics and Polic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Wolcott, S. (1993): "Keynes versus Churchill: Revaluation and British Unemployment in the 1920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3, Sept.
- Worswick, G.D.N. (1984): "The Sources of Recovery in UK in the 1930s,"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10, November.
- Wright, G.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New Deal Spending: An Econometric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 February.